



眞理正義  
自我進就

# 濟大新新聞

발행인 金澤玉 주 간 鄭大然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任尚繁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국) 54-2278·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26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1년 9월 10일 화요일

1

## 19일까지 투쟁주간으로 선포

13일부터 '궐기대회' 시발로 대대적인 범저지투쟁전개

투쟁본부 투쟁·유격 문예 선봉대등 모집

전도적으로 특별법저지 1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에서는 기존의 특별법 저지 학내 분반모임의 강화된 형태로 '제주특별법 특별법 저지자'를 위한 투쟁본부'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 투쟁본부는 각단체 소위원회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총학생회 각부서가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기구를 중심으로 시행될 특별법 저지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보면 △9월9일부터 13일까지의 교문앞 연좌시위, 강의실 방문, 서명운동, 유인물 홍보등을 벌이며 △13일 '정기국회 특별법저지'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에게 각각 보내기로 했다.

이러한 사업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쟁본부에서는 특별법 저지 투쟁본부, 유격문예선봉대를 모집하고 있다. 각 학과에서도 특별법저지 반대투쟁열거가 고조되고 있는데 기관공학과와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수막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4일 오후2시에는 '특별법저지'를 위해 2차, 2학기 청년아라 구국투쟁 선포식'이 4백여명의 학우가

모인 가운데 민주광장에서 있었다.

이날 투쟁선포식에서 위성곤(원예4) 총학생회장은 구국투쟁선포에서 "총학생회는 4·3학살인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음모는 미국과 노태우 정권의 4천만 민중에 대한 압제와 수탈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특별법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단결의 대오를 가다듬고 노정권 퇴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2학기 구국투쟁을 일차적 전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강성진(수·2)학우의 사발식이 있었는데 강학우의 머리카락은 특별법저지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에게 각각 보내기로 했다.

집회를 마치고 3시45분경 교문을 진출한 3백여명의 학우들은 경찰의 진압없이 우리학교입구 제1회전도로를 점거, 지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2시간동안 홍보물을 벌이고 5시경 해산했다. 그런데 이때 제주여고부근의 경찰을 뚫고 시내진출투쟁을 한다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2시간동안의 홍보전으로 끝내 대대적인 시위에 실패했다는 일부 학우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저녁 6시30분경에는



○특별법저지투쟁본부에서 선봉대로 참가한 학우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400여명의 학우가 참가했다.

"제주도민 다 죽이고 독점제벌 살찌우는 특별법을 저지하자", "제주도민 단결하여 특별법을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앙로, 동문로, 서문로, 시청 등 시내 곳곳에서 유인물 홍보등 산발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이고 2시간여만에 중앙로에서 해산했다.

한편 지난 9월7일 오후3시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범도민대회'가 제주교육대학 체육관에서 5백여명의 도민과 학우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됐다.

이날 결성식에서 범도민회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제주도는 자랑스런 역사를 오늘의 삶으로 이어받아 보다 당당한 내일의 역사를 창조하려는 의지의 타전"이라고 전제 "제주도민의 삶과 역사에 대한 대의명분을 수렴하고자 반민주적 반도민적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반대"를 위한 범도민회 결성을 약속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범도민회는 또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제2

### 9월중 학사일정

△북학생등록기간=17일까지 △대학원 종합시험및 외국어시험=6일 △교과대학원 외국어시험=7일 △수업주수 1/3선=25일 △교육대학원종합시험=28일

## 홍보미흡... 학우들 무관심

3천4백여만원 복지시설금 낮잠

인복위, 15일까지 학우들의 여론수렴 용도 결정

지난 2월중에 있었던 등록금 협상에서 기성회비 9.5% 인상중 0.6%에 해당하는 3천4백여만원은 순수학생복지시설에 사용한다는 합의에 따라 총학생회 산하 인권복지위원회(위원장 양성봉 통신폭4)에서는 이 금액의 올바른 쓰임을 위해 지난 9월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필요한 학생복지시설에 대해 학우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에서는 학우들로부터 수렴된 시설안들을 종합하여 이를 학교측에 건의하게 되는데 인복위측에서는 필요 복지시설 실태로 각 단과대학에 등나무 아의 휴게실, 각 단과대학 식수대 시설, 음향발의 노천극장, 조경시설등을 들고 있다.

지금까지 인복위에 건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복위의 한 관계자는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재차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다.

순수 학생복지시설금 3천4백여만원에 대한 올바른 쓰임을 위해 전개되고 있는 여론수렴작업이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홍보 부족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주인의식 결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학생복지시설금이 제대

로 사용되기 위해선 가장 적은 투자로 많은 수요를 얻을 수 있는 것에 쓰여져야 한다고 본다. 위의 실태를 제의해서 몇가지 그 쓰임에 대한 예를 든다면 △교문진입로 주변에 나무와 나무사이로 무질서하게 걸려진 현수막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현수막 걸이'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대학의 자보문화로 인해 좁아 가기를 위해 전개되고 있는 여론수렴작업이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홍보 부족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주인의식 결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학생복지시설금이 제대

## 1백57명 학점취득 못해

4주간 실시된 하계계절수업에서

지난 7월4일부터 8월1일까지 4주간 실시됐던 하계계절수업에서 신청자중 27%인 1백57명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목별 수강인원과 학점취득현황을 보면 △사회학개론 2명(3명) △학점취득자 1명(4명) △미취득자 86명 △통계학 1명(39명) △1명(8명) △31명 △백택해석 83명(67명) △16명 △국어교육론 66명(51명) △15명 △중세국어문법 32명(26명) △6명 △현대문학작품론 29명(26명) △3명 등 총 5백83명이 수강하여 4백26명(73%)이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1백57명중 대부분의 학우들은 출석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학기 등록률 94.3% 9월5일까지 집계

7천1백36명의 재학생 가운데 6천7백32명이 9월5일까지 등록해 총 94.3%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5일 결리과에서 발표한 '91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등록현황'에 따르면 단과대학별로는 1천96명이 등록한 경상대가 95.9%로 가장 높은 반면 7백28명이 등록한 농과대가 92.2%로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등록과 관련해 결리과와 한 관계자는 "3차 추가 등록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9월12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한다"며 등록하지 않은 학우들이 빠른 시일내 등록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 (社) (告)

#### 제11회 백록학술상 현상공모

1. 분 야: ○ 주제논문 (70대 내외)  
- 제주도의 사회변동 및 개발에 관한 내용  
○ 일반논문 (70대 내외)  
- 인문사회, 자연과학분야
2. 시 상: ○ 주제논문 당선 1편-30만원  
가작 1편-15만원  
○ 일반논문 당선 1편-20만원  
가작 1편-10만원
3. 응모마감: 10월31일(목)
4. 제 출 처: 본사편집국  
(동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학술상 작품'임을 명기할것)
5. 당선작 발표: 추후공고
6. 기 타: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 54-2278, 2279)

제대신문사

### 들하르방

#### 대학정상화 모색(?)

우리의 현 교육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부인하고 대학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끔 족쇄만을 채워가려고 하고 있다. 이를 실효있게 하려면 지난 9월 4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됐던 대학교육협의회 산하 대학발전연구위원회가 마련한 5개 분야의 권장사항이다.

△그 첫째는 대학내 시설을 파괴자는 배상조치토록 하고 △둘째, 학생의 자판기 운영등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셋째, 장학금 지급에 지도교수 추천을 필수화하는 것 △넷째, 총학장 및 교수인사에 학생참여를 배제하고 △다섯째, 임시부정 자체검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파괴된 학내 시설물 등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며, 학보·교지발행은 지도교수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권

장한 것이다. 대학교수협의회는 학생회비의 예산편성을 학교당국이 승인하도록 하며, 학교예산 및 집행에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간의 한계를 명시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아울러 권장(?)했다. 또 교육부가 작성한 학원안전안에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가려는 학사규정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져 있다.

대학은 자율적인 생활속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뎌져야 할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이방의 통치자들은 대학이 자율성마저 빼앗아 학생들을 대상화하고, 자신들의 집단을 보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악용하려고 하고 있으니...

대학교육협의회가 며칠 밤낮을 꼬마리 켜며 생각해 낸게 고작 정권의 책두각시 놀음에 불과한 것이라니, 정말로 치졸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따위 발상을 대학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말로 지극히 '비정상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게 대학교육협의회인가? 이 시점에서 전국 4년제 대학교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진정으로 애써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총학장협의회가 해야할 역할은 각 대학의 사정을 파악하고 대학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자신이 처한 대학환경을 개선시켜, 대학을 진일보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대학이 가장 심각하게 '드크고 깃'을 재원을 확충, 실험실습기자재등을 충분히 확보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학과이 집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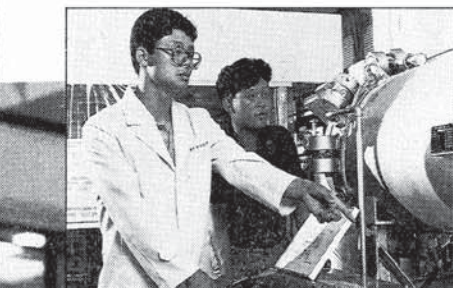
그런데도 이 협의체는 이런 대학의 진정한 발전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대학장기발전운운하면서 공안통치적 차원의 발상이나 하고 있으니, 어디에 우리들의 대학이 설 수 있겠는가

진정한 대학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모여 앉은 것이라면 그에 역행하는 발상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의 의미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번과 같은 졸렬한 발상은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繁】

대우가 있습니다

## “형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 형이 근무하는 실험실에서 -

▼ 대우중공업 최우철(우주항공 연구소 항공기 소팀) 사원과 공학도인 동생 최성훈.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고생이야 객지에 나와 있는 형이 더하죠. 이제 우리 항공기술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던데 언제쯤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대우는 이미 고요모델 항공기 생산을 위한 기본 설계능력부터 항공기술의 최대관건인 첨단 복합소재 개발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을 갖춰놓고 있지. 게다가 최근에는 위성통신 분야에서 영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 요청을 받을 정도란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안에 항공기는 물론 한국최초의 인공통신위성이 발사되는 것을 보게 될거야.”

“형, 너희들 이론과 현상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대학시절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잖아.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얼마만큼 창조적으로 응용하느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대학시절 이론적 기초를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지.”  
“알았어, 형. 남은 대학생들 열심히 노력해서 형 못지않은 신기술 창조의 주역이 되고야 말겠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자기개발에 힘쓰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작



社說

### 대학의 원칙 전제돼야 -발전계획공청회에 거는 기대

2000년대를 대비한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 시안이 최근 보고되었고, 조만간 이에 대해 공청회를 갖는다고 한다. 공청회란 사전적 정의를 빌린다면 사회 일반에 큰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건을 의결에 부치기 전에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를 말한다. 제주대학교가 중시하는 미래의 내용이나 그것이 현실성과 적절성 등은 우리들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기대는 남다를 수 밖에 없으리라 여겨진다.

무릇 대학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지식을 개발할 목적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운데서도 가장 세련된 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미국의 The University of Witwatersrand가 발행한 성명서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어떤 문명사회에서도 장차 인간이 직면하는 일을 예측하여 그 일에 당면하면 거기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지식을 넓히고 지식을 소화하고 지식을 전제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한다. 이러한 제도 가운데서 대학은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라는 요지가 그것이다.

조금은 고리타분하지만 새삼 대학의 이념을 되새겨 보게 하는 내용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대체 종합발전계획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왜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되풀이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날 대학은 자금자족으로서 모든 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세계는 분명히 아니며 대학은 이 사회 일반의 고등교육을 둘러싼 움직임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K.Jaspers류의 고전적 대학관 같은 것은 어찌하면 시대착오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 대학의 발전계획에도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공청회의 공개성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공청회에 앞서 원칙을 운운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그것이 대학의 내부적 결속을 가져다 주는 최대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의 내부적 결속이라는 것은 대학본래의 사명들에 충분히 유념하고 그 상호의존적 전개를 보장하며 또한 대학의 복잡한 행정운영에 있어서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들의 대학식구들로 하여금 각각 적절한 역할을 발휘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 평형감각이 결여되고 있을 것 같으면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차후 우리 대학이 전진한 형태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대학의 장래에 마음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대학 생활의 일상에 있어 지극히 일관적인 것이라고 하여도 의견의 편향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학이라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학자와 학생들의 집단이라는 것이 아닐까.

공청회, 마땅히 주인자격을 참여하여 생산적인 관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편협한 마음의 전제적 이기주의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치한 대학의 원칙에 대한 재천명이 있어야 하리라 믿는다. 적어도 공청회의 생산성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그렇다.

無論有說

荔枝斷想

### 여지, 하루 지나면 색·향기가 변해

고대 문명국가인 중국에서는 화제(花祭)에 대한 인식과 안목이 앞섰기에 시(詩)인들에게는 좋은 시의 제재(題材)가 되어 詩歌로 읊었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다. 그 중에서도 荔枝(여지)와 동양의 미인으로 손꼽히는 楊貴妃에 대한 일화가 우리의 흥미를 끈다.

絶世佳人在中國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의 漢字文化圈에서도 傾國之色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故事에서 나온 것이니,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樂師인 李延年在 부른 노래에서이다. "北方有佳人, 絶世而獨立。一顧傾人城, 再顧傾人國。(북방에 미인이 있어 세상에 다시 없이 홀로 우뚝하네, 한번 보면 성을 기울게 하고 다시 보면 나라를 기울게 하네.)" 또한 唐

나라 뿐만 아니라 中國文學上 유명한 詩人인 李白的 清平調詞라는 시가 玄宗의 어명(御命)에 의해 쓰여졌다. "名花傾國兩相歡, 長得君王帶笑看。(꽃과 傾國의美人과는 서로 사랑함만해서 반기고, 임금님은 한없이 싱글벙글 바라만 보네.)" 공경안의 香木으로 세운 정자 앞 모란꽃밭에 玄宗을 따라 나온 楊貴妃를 한껏 찬미한 詩다. 名花인 모란은 꽃의 부귀스러움에 있어 꽃중의 꽃(花中之王)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해마다 모란이 만발하면 황제뿐만 아니라 민백성이 모두 다 꽃을 즐기며 놀았다.

玄宗의 사랑을 마냥 독차지한 楊貴妃는 과일에서도 여지를 가장 좋아했는데, 그것은 長安(지금의 西安)에서



나지 않고 수천리 떨어진 南方지방에서 열리는 열매로 맛보기 드문 과일이었다. 그것을 나르기 위해 수백 명의 軍馬가 길을 나눠 릴레이식으로 낮과 밤을 가릴 틈없이 험한 길을 실새없이 달려야만 했으니 長安에서 멀리 떨어진 人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에 얽힌 고사들이 많으니 우선 杜牧의

과이부

詩를 보자. "長安回馬道, 山頂千門次第開。一騎紅塵妃子笑, 無人知是荔枝來。(長安을 회고하는데 비단은 겹겹이 쌓여 높기도 하네, 산꼭대기 궁궐 문도 차례로 거칠없이 열리니: 한 필의 말이 손발같이 흙 먼지내며 들어오니 楊貴妃는 미소를 지을 뿐, 그 누구도 여지가 실려온 것을 알지 못하네.)" 이렇게 생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널리 알려져 廣東지방에서는 詩句를 따서 여지를 "妃子笑"라고도 부르게 됐으며 오래 저장할 수 없어서 수송에 신축을 요했다. 또한 白居易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若離本枝, 一日而色變, 二日而香變, 三日而味變, 四日外, 色香味盡去矣.(여지를 따고 나서 하루 지나면 색상이 변하고, 이를 지나면

향기가 변하고 사흘이 지나면 색·향·맛이 다 변해 버리니라.)"

필자가 급년 여름방학에 臺灣의 臺南市에 있는 成功大學에 갔을 때 교문 앞의 벚꽃 아시안에서 호기심에 끌려 이 여지를 사먹어 보았다. 좀 단단하고 매끄럽지 않은 껍질을 손으로 벗겨내면 종그스럼한 선홍자색(鮮紅紫色)이니 군침이 난다. 과육(果肉)은 짙은 자주빛 큰 씨를 감싸고 있어서 양이 많지 않아 포만감(飽滿感)을 느낄 수는 없지만 입안이 시원 달콤해서 閒談·情談을 나누며 계속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 하겠다.

지난주 서귀포에서 바나나 농장을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이 친구의 말에 즉, 마구잡이 바나나 수입 때문에 진피양낭(進退兩難)이라고 한숨을 쉬는 소리였다. 언뜻 여지가 생각나 여떠나고 말했더니 우선 中文字에 있는 '如美地土物'에 가서 구경이나 하라고 하여 가 보았다. 단일 온실로는 동양 최고로 약 3천4백평이며 2천2백평의 수종이 심어져 있다고 한다. 물론 여지도 있었는데 수입해 와서 風土 때문

인지, 黃化현상인지 알아 두게 시들고 있어서 그 명성에 비해 볼품이 없었다. 여지알 藥(藥)에 한걸음 명칭과 英名, 學名 및 간단한 설명문이 쓰여 있었다. "리치, Li Chi, 원산지 중국 남부. 옛부터 중국에서 재배되어 온 중요한 과일로 직경 3cm 내외이며 붉게 익고 과육은 백색 반투명하다. 唐의 楊貴妃가 이 과일을 좋아해서 廣東에서 長安까지 수천리 길을 마차로 수시로 운반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 명칭을 팔호라든가 처서漢字로도 써주어야 제주를 찾는 수 많은 것거라 문화권의 관광객들도 보아서 알 수 있고 관심을 가질텐데, 관리자에게 여지(荔枝)가 묶은 것 같다고 글을 써 보이며 말해도 심드렁하게 듣고 마는 것 같아서 섭섭한 점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고쳐지리라 믿는다. 또한 제주에서 여지를 관광(觀賞)하고 신선한 열매를 맛 볼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며 심상하게 자라나서 상록과수(常綠果樹)의 면모를 실제로 보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인문대부교수

### 심판 '설마' 증후군

### 특별법이 원자폭탄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전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1945년 8월, 이달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던 때이다.

이 사건이 있기 한달전 쯤 미전폭기 2대가 히로시마 상공을 날고 있었다. 겉에 칠린 사람들은 너도나도 집을 뛰쳐 나왔다.

하지만 별다른 일 없이 그 전투기는 수천장의 전단을 뿌리고 사라졌는데 그 전단은 '한달후 원폭투하가 있을 예정이니 시민들은 미리 대피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몇몇 사람만이 대충 집을 꾸리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후 정확히 한달후 2개의 원폭은 히로시마를 강타했다. 그들은 '설마'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은 수백만의 인명을 앗아가는 대가 지불돼야 했다.

적절한 비용이 들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주도에는 원폭에 비견될 정도로 밀어닥치고 있는 것이 있다. 특별법에서 특조법으로 또 특별법으로 무한히 이름을 바꿔가며, 본질을 왜곡하고 서서히 도민들의 의식속으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이에 대해 '법도민특별법 저지대책위'를 중심으로 이에대한 저지의지와 또한 10만인 서명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그야말로 특별법이 이제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반면에 무관심한 상태로 남소주의자의 치졸한 미소를 보내는 일단의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어느 한 시각에 접근하여 볼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는 특별법에 대한 분명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함에 따른 의식과 실천의 부재이며, 제주도에 대한 주인의식의 결여 때문이다.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상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설사 깨닫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일과는 무관하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인 것이다.

행정학과 교묘교수는 모 일간지 지상을 통해 '제주도가 외지자본에 의해 내국식민지화 되고 있다고 했지만 이같은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특별법의 실행이 가시화되면 아마 우리의 정신문화도 그 식민지적 증후군에 의해 좀먹게 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정황 우리는 골프장과 휴양지의 무법천



○아무도 우릴 특별법 원폭의 악령으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

지와 재벌들의 유포피에 우리와 우리 후세대가 살게 될 것이다.

특별법저지 투쟁은 지각 있는 몇몇 소수와 운동권 학생들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이다.

지금 이때 한명의 목소리와 한명의 서명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하나로 단결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한다.

### 알아보시다

### 보호관찰소 취업정보

'89년 7월1일 보호관찰법의 시행에 따라 법무부 보호국소수 정비기관으로 설치된 보호 관찰소는 전국 지방경찰청 소재지(제주포함)에 12개소의 보호관찰소가, 6개도시에 보호관찰소 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국 정원은 3급이하 2백71명.

주요무내용은 20세미만의 소년사범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하게 하면서 일 정기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 방문하여 상담, 선행, 봉사활동을 시키고 만약 이에 불응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처분권경등으로 수감하고 보호 상담과 강제적 형사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총무처시행 92년도 공채인원은 9급(주임) 30명으로 확실히 되며, 시험과목은 9급인 경우 제1차 국어 I·II(한문포함), 국사, 영어 제2차에는 사회·I·II, 국민윤리, 전자계산 일반이다.

선진국이 모두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보호관찰제에 대한 신뢰도 선호도가 직종별 3~4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인이까지 실시한다면 인원이 4~5배 증가할 것이며 그만큼 승진과 업무의 충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취재부】

### 서평 김대행 『詩歌詩學研究』

金大率교수의 「詩歌詩學研究」가 이화여대 출판부(91. 7. 25)에서 간행되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시가 장르인 시조,가사,판소리,민요를 대상으로 한 총 15편의 연구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이 저서는 논문마다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김교수의 새로운 입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당한 무게를 지닌 채 학계에 학문적 성과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 저서 안의 몇몇 논문들은 이미 학계에서 선행 연구의 결과 하나의 정설과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뒤집고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과제들을 김교수의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을 통해 합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추론해 내고 있어 매우 주목받을 만한 것이라 믿는다. 예컨대 근대전환기에 창출된 이른바 (사회동가사)가 사실은 가사가 아니라 (민요시)라고 입증해 보인 것과 (어부사시사)의 장르적 외연을 시조가 아니라 가사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인 추론을 통해 실력 있게 제시한 것등이다. 그 밖에 장형시조에 대하여 그것이 발전적 형태로서 시기적으로 단형시조 이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것은 다른(興)형태로서의 위치에 있고 따라서 장형시조와 단형시조는 작자 또는 그 시대문제에 있어서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입증한 것등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한편 이 저서는 궁극적으로 문학의 본질은 무엇이며, 문학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우리의 시가 작품에 유용한 기법자와 그 도구는 무엇인가하

는 보다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연구,전개하고 있다.

이 저서는 다섯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사실상 문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특색을 지닌다. 그 소제목의 구체적인 목록을 살펴보면 제1부는 (말하기의 시학), 제2부는 (말하기의 시학), 제3부는 (사람의 시학), 제4부는 (삶의 시학), 제5부는 (웃음의 시학) 등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문학 특히 시(노래)는 결국 (말하기)에 다름 아닌데, 그것이 예사로운 말과 다른 점은 특유의 다듬어진 (틀)을 지니고 있고, 또 문학은 결국은 (사람)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한국문학의 특색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웃음)의 추구인 것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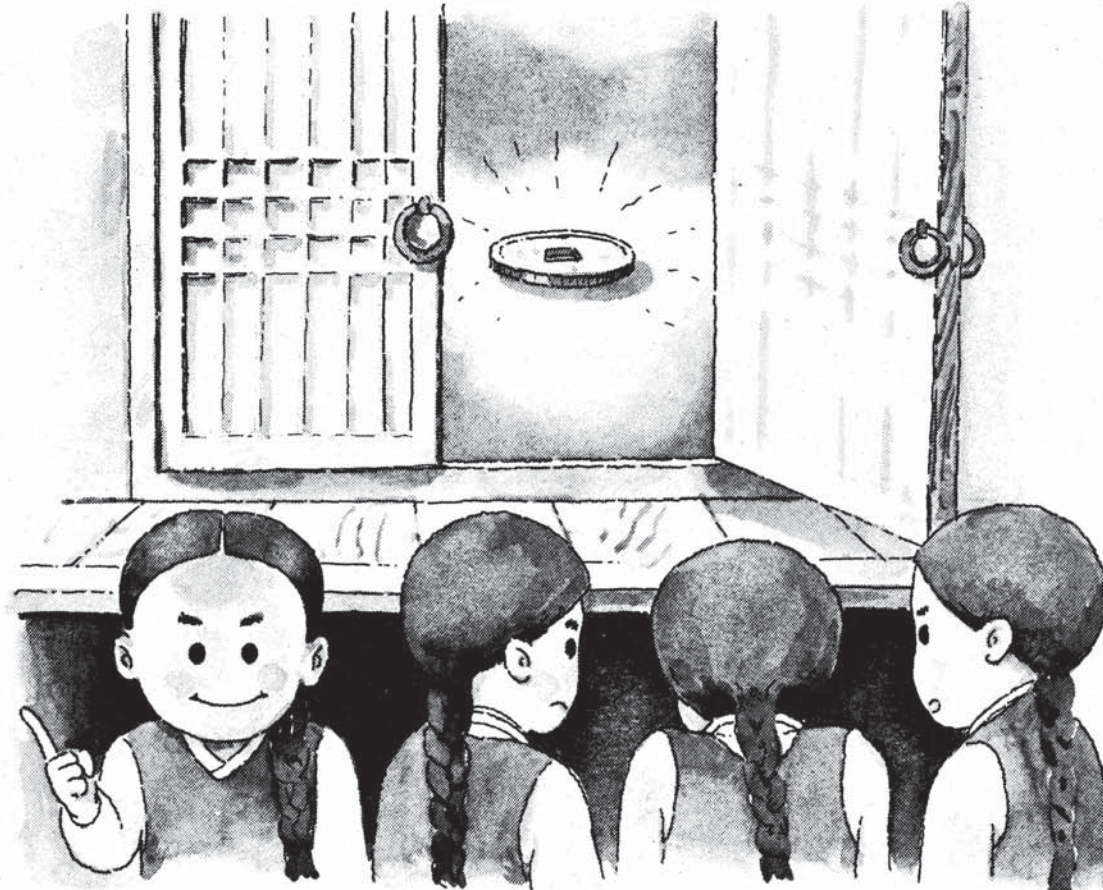
이상 이 저서가 지니는 몇 가지 개성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고전시가에 대한 주목되는 저서이면서 동시에 우리 시가 일반의 이론서이며, 나아가 문학 원론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 이 분야에 뜻을 둔 분들에게 일독하기를 권하고자 한다.

양순필 국어교육과 교수

### 濟大漫評



### 누가 동전 한 닢으로 이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가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누가 동전 한 닢으로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훈장님이 동전을 내밀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난감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  
이윽고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동전을 받아들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그 동전으로 양초를 한 자루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학생이 양초에 불을 밝히자 그 빛으로 방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응하는 슬기와 진취적사고— 바로 동양그룹이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동양그룹은 사고의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미래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장기발전계획 학사부문  
시안이 발표됐다. 2001년을 목표  
년도로 내년부터 10년간 시행될 이 계획  
은 우리학교의 미래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  
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  
점에서 이 계획(시안)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 미비점은 무엇이며 취약점은  
어떤 것인가, 얼마나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현실성이 있는가하는 문제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사에서 이 발전계획 시안에 대  
한 각계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 '지상공청회'를 기획해  
보았다. 계획에 대한 수정·보  
완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워은이 씀>

## 학과신설목적등 불분명 대학현실 명확한 분석 미흡 재정적 측면 고려치 않아 실현가능성 의문

고남욱 평의원의학장 경제학과 교수

장기발전계획이라 함은 기간계 획으로서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종합 계획이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으로는 학교규모의 확대와 복잡화·안전적 발전의 요구·사회 변동의 속도화·고정적 자본의 증가와 필요성 그리고 학교 구성원에게 장기적인 통일 목표를 세워 각 계층의 의정통일을 꾀하기 위해 필요하다.

장기발전계획의 성격으로는 학교경영의 장래에 있어서 환경이나 조건을 예측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구체화하여 제주대학교 위상에 대한 비전을 높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은 학교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학교내부상황의 분석·장기교육목표의 설정·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수입의 순서에 의해 책정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 학교본부 기획실에서 마련한 제주대학교발전계획(안)의 내용의 대강을 살펴보면 대외 부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지방화추진, 민족통일, 외과대학의 신설, 예술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래의 동향을 예측하고 졸업생에 대한 분석 미흡, 전임교원의 경력개발에 대한 분석 미흡, 행정·경영·법률·간호대학 및 학과 신설의 목적 및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으며, 졸업 이후 사회에서의 취업상황에 대한 분석 미흡,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수시가 6시간 기준으로 계획(안)이 작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점 등이다.

학교내부상황의 분석에서는 본 대학교가 지니고 있는 체질적 우월성과 문제점의 축적을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예로서 학교재정의 운영 상황 및 문제점 파악, 행정업무전산화 계획과 관련하여 행정 인력인수계획의 조정, 졸업생들의 전문직업 경력 및 오늘날 사회에서의 경력개발에 대한 분석 미흡, 정보부족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어려움, 정보부족으로



고남욱 교수

과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장기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장기발전계획의 출발점인 동시에 장기발전의 중추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의 책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 예로서 본 계획기간동안 학생증원수는 7백70명인데 대교 교수인 5백12명, 조교 1백89명, 직원 2백68명등 교직원 증원수는 9백69명으로 학생수가 증가보다 교직원들의 증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계획에 의하면 학생 16명당 교직원 2.1명의 비율로 학생 대 교직원 구성비가 계획되어 교직원 1인당 학생수는 약 8명의 비율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아니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생각된다.

장기발전계획은 장기적·종합적 내지 총괄적 계획이다. 장기계획은 전략적인 시설투자, 교육의 질적인 향상, 조직구조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장기교육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은 창조적이며 전진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할 것이다.

## 학과 정원 재조정 시설등 감안해 학과 신설해야 학생수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대책 미흡

허인옥 생물학과 교수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濟大 學校 長期發展을 위한 綜合計劃案이 마련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다. 본 案을 접하면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코자 한다.

첫째, 各學科의 定員問題. 현행 各學科의 定員은 예산배정방식이나 운영에 불합리한 점 때문에 40명이 획일적으로 되고 있으나 2000年代를 目標로 하고 있으므로 力의 需給이나 學科의 特性에 따라서 정원을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망된다.

둘째, 학과의 신설문제. 제주시의 특수성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설은 바람직한 일이나 시설과 교수요원의 확보등을 고려해볼 때 93년도에 신원을 모집하는 것은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려되며 우수한 여학생의 진로나 취업등을 고려한다면 藥學科의 신설이 요망되며, 제주시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漢醫學科의 설치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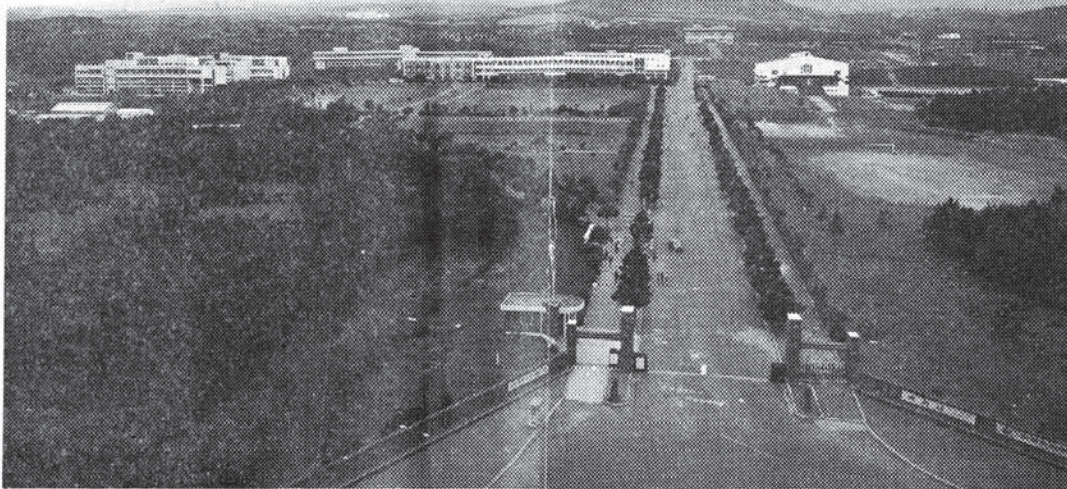
또한 人力수급과 학문적 배경으로 보면 미생물학과와 환경학과와 신설도 바람직하다. 셋째, 각종 연구소의 활성화. 현재 본교에 설치된 각종연구소의 운영은 관련분야에 교수와 조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조교도 없는 연구시설이 있는 점과 공공요금 정도의 재정지

원으로는 연구소가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하는 바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소에 대한 상임연구원을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최소한의 연구활동비는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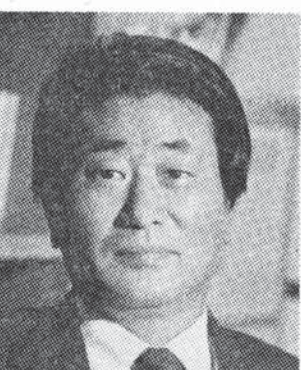
넷째, 학생들에 대한 연구활동의 지원. 대학교육의 기능이 연구와 교육이려면 특정한 내용의 실천과 해당분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은 학문적인 뒷받침은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바람직한 학생지도의 의미도 크므로 이에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학생들의 활동하면 대학원이나 학생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학술 및 연구활동을 권장해야 할 것으로, 예를들면 교내에 學術세미나 혹은 연구발표,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가 주관하는 심포지엄, 세미나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예산의 지원이 요망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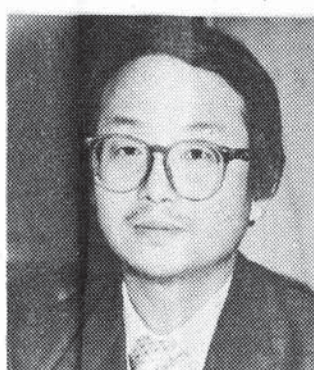
다섯째, 구내서점의 확장문제. 학술활동을 진작하고 학생들의 교과의 구입과 教授의 文獻 확보를 위해서는 구내서점의 확대가 요망된다. 이 문제는 학생이나 교수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대강의 확장을 통해서 패각한 분위기로 조성하는 일과 판매기능 제도적인 개선도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정문앞에서 내려다 본 우리대학 전경



김종태 교수



황복길 교수



박득수 교수

## 대학이념 항목들간 통합 결여 제 학문분야의 연계방안 마련 절실

김종태, 독어독문학과 부교수

대학발전의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연구와 교육에 결부된 문제뿐 아니라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전체 사회현상과 지역사회와의 여건, 제도변화에 따르는 전 통과의 갈등, 재정문제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전방향을 세우는 데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뚜렷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견해의 일치를 볼 수 있다면,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는 한층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누구도 확실하고 명백한 견해를 가지기는 힘들다. 좀더 나은 생각이나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움과 불안한 느낌이 현재의 생각에 쏠려서 묻고 따라다니며 어쩔 수 없다.

그동안 우리대학의 발전방향안을 내놓기까지의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해 온 발전계획위원회는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대학의 발전방향은 바로 우리의 현실과 사회와 삶의 발전방향과 일치하고, 그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대학 스스로이기에, 현재에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가장 바람직한 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 또한 우리 대학인 모두가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발전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어떻게 현실의 생각에 쏠려서 묻고 따라다니며 어쩔 수 없다. 그동안 우리대학의 발전방향안을 내놓기까지의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해 온 발전계획위원회는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대학의 발전방향은 바로 우리의 현실과 사회와 삶의 발전방향과 일치하고, 그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대학 스스로이기에, 현재에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가장 바람직한 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 또한 우리 대학인 모두가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발전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어떻게 현실의 생각에 쏠려서 묻고 따라다니며 어쩔 수 없다. 그동안 우리대학의 발전방향안을 내놓기까지의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해 온 발전계획위원회는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대학의 발전방향은 바로 우리의 현실과 사회와 삶의 발전방향과 일치하고, 그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대학 스스로이기에, 현재에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가장 바람직한 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 또한 우리 대학인 모두가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본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전제적인 의견. 본 종합발전계획(안)은 전반적으로 2000년대로 향하는 과정에 제주대학교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대학발전의 양적 증가는 본 대학이 개교 이래 지금까지 40년 간의 실적과 태대대학의 비교, 지역적 특성 등에 의한 목표 설정, 그리고 추정된 재정수요의 동원가능성 등을 토대로 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발전의 기본 방향은 미래에 전개되어야 할 대학교육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육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단계적이고 일관적인 안목에서 2000년대를 내다 보는 '종합발전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계획안을 검토하면 좋은 아이디어나 참견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야망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영역별 발전의 기본 방향이나 그 개선 내용이 명료하지 못하다. 여기서 명료하다는 것은 구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야 할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간성을 효과적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 즉 교육내용, 교육의 기회, 교육제도, 교육환경, 교육운영 등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지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의 질 향상보다는 대학의 양적 팽창에 비중을 두고 있다. 대학의 학과증설과 이에따른 예산 지원은 근본적으로 학생의 질 향상에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원은 지식·기술·인격 등에서 기대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 교육과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교수진과 시설 등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한 투자가 부족하였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는 투자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본 대학이 국제화에 대비한 대학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나 질적 저하에 대한 대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개선 내용(발전안)에 대해 추경된 재정수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성찰과 비판을 하는 일이다. 현재의 불완전한 점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된 다음에 더 발전적인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발전계획은 미래의 우리대학의 모습을 위한 것이지 개선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를 서술하는 일이나 아닌 동시에, 미래상이 현재의 상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현재의 모습의 변화이기에 발전을 위한 현재의 기반을 먼저 다지고 난 다음에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학의 이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대학의 이념이 현재에 잘 구현되고 있는가? 현재의 상태에 대한 평가의 방향이고, 미래에 어떻게 좀 더 잘 구현시킬 수 있는가? 발전의 방향이 될 것이다. 또 대학의 이념에 우리 모두가 먼저 합의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대학의 모든 활동이 그 이념의 실현으로 향할 때 대학의 진정한 발전은 가능하게 되고 대학의 이념을 분명히 하는 일과, 그 이념을 풀은 전체적인 대학발전 방향의 틀을 먼저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나온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안도 대학의 이념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 계획안에 나타난 대학의 목표는 대체로 연구와 교육과 사회 기여라는 세가지 목표로 압축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학의 일반적 이념이라는 것에 아무도 반대할 수 없지만, 대학의 이념의 성격보다는 대학의 활동과 기능의 측면을 말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세가지 목표에 앞서 이 세가지 목표를 통합시키고, 이것들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좋지 않을까 한다. 이 세가지 대학의 목표는 따로따로 추구되거나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달성되기도 하고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는 저절로 성취되는 부수적 목표이기도 하기에 세가지 목표를 나열식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세 목표의 유기적 관련성을 좀더 부각시킬 때 이념의 명료성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대학의 이념으로서의 대학의 목표를 '앎과 함'이라는 말로 좀더 이념화 하면 된다. 앎에 의한 함의 함, 더 나은 앎에 의한 더 나은 함, 좋은 앎(참다운 지식, 정의로움 지식, 아름다운 지식)에 의한 함(참되고, 아름다운 현실)에 의한 함의 함은 표현은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좋은 지식의 추구에 있고, 좋은 지식에 의해 좋은 인간을 형성해 내고, 좋은 지식으로 사회와 인간을 개선하고, 증대는 우리의 세계와 현실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목표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계획안의 이념의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지만, 좀더 이념화시킨 이러한 표현은 대학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사회봉사기관이라는 기능위주의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의 제도화와 조직화, 경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학문의 제도화와 경직성을 막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추진된 재정수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성찰과 비판을 하는 일이다. 현재의 불완전한 점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된 다음에 더 발전적인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발전계획은 미래의 우리대학의 모습을 위한 것이지 개선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를 서술하는 일이나 아닌 동시에, 미래상이 현재의 상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현재의 모습의 변화이기에 발전을 위한 현재의 기반을 먼저 다지고 난 다음에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학의 이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대학의 이념이 현재에 잘 구현되고 있는가? 현재의 상태에 대한 평가의 방향이고, 미래에 어떻게 좀 더 잘 구현시킬 수 있는가? 발전의 방향이 될 것이다. 또 대학의 이념에 우리 모두가 먼저 합의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대학의 모든 활동이 그 이념의 실현으로 향할 때 대학의 진정한 발전은 가능하게 되고 대학의 이념을 분명히 하는 일과, 그 이념을 풀은 전체적인 대학발전 방향의 틀을 먼저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학의 이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대학의 이념이 현재에 잘 구현되고 있는가? 현재의 상태에 대한 평가의 방향이고, 미래에 어떻게 좀 더 잘 구현시킬 수 있는가? 발전의 방향이 될 것이다. 또 대학의 이념에 우리 모두가 먼저 합의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대학의 모든 활동이 그 이념의 실현으로 향할 때 대학의 진정한 발전은 가능하게 되고 대학의 이념을 분명히 하는 일과, 그 이념을 풀은 전체적인 대학발전 방향의 틀을 먼저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나온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안도 대학의 이념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 계획안에 나타난 대학의 목표는 대체로 연구와 교육과 사회 기여라는 세가지 목표로 압축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학의 일반적 이념이라는 것에 아무도 반대할 수 없지만, 대학의 이념의 성격보다는 대학의 활동과 기능의 측면을 말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세가지 목표에 앞서 이 세가지 목표를 통합시키고, 이것들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좋지 않을까 한다. 이 세가지 대학의 목표는 따로따로 추구되거나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달성되기도 하고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는 저절로 성취되는 부수적 목표이기도 하기에 세가지 목표를 나열식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세 목표의 유기적 관련성을 좀더 부각시킬 때 이념의 명료성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대학의 이념으로서의 대학의 목표를 '앎과 함'이라는 말로 좀더 이념화 하면 된다. 앎에 의한 함의 함, 더 나은 앎에 의한 더 나은 함, 좋은 앎(참다운 지식, 정의로움 지식, 아름다운 지식)에 의한 함(참되고, 아름다운 현실)에 의한 함의 함은 표현은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좋은 지식의 추구에 있고, 좋은 지식에 의해 좋은 인간을 형성해 내고, 좋은 지식으로 사회와 인간을 개선하고, 증대는 우리의 세계와 현실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목표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계획안의 이념의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지만, 좀더 이념화시킨 이러한 표현은 대학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사회봉사기관이라는 기능위주의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의 제도화와 조직화, 경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학문의 제도화와 경직성을 막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추진된 재정수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성찰과 비판을 하는 일이다. 현재의 불완전한 점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된 다음에 더 발전적인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발전계획은 미래의 우리대학의 모습을 위한 것이지 개선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를 서술하는 일이나 아닌 동시에, 미래상이 현재의 상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현재의 모습의 변화이기에 발전을 위한 현재의 기반을 먼저 다지고 난 다음에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학의 이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대학의 이념이 현재에 잘 구현되고 있는가? 현재의 상태에 대한 평가의 방향이고, 미래에 어떻게 좀 더 잘 구현시킬 수 있는가? 발전의 방향이 될 것이다. 또 대학의 이념에 우리 모두가 먼저 합의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대학의 모든 활동이 그 이념의 실현으로 향할 때 대학의 진정한 발전은 가능하게 되고 대학의 이념을 분명히 하는 일과, 그 이념을 풀은 전체적인 대학발전 방향의 틀을 먼저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추진된 재정수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성찰과 비판을 하는 일이다. 현재의 불완전한 점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된 다음에 더 발전적인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발전계획은 미래의 우리대학의 모습을 위한 것이지 개선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를 서술하는 일이나 아닌 동시에, 미래상이 현재의 상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 현재의 모습의 변화이기에 발전을 위한 현재의 기반을 먼저 다지고 난 다음에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학의 이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대학의 이념이 현재에 잘 구현되고 있는가? 현재의 상태에 대한 평가의 방향이고, 미래에 어떻게 좀 더 잘 구현시킬 수 있는가? 발전의 방향이 될 것이다. 또 대학의 이념에 우리 모두가 먼저 합의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대학의 모든 활동이 그 이념의 실현으로 향할 때 대학의 진정한 발전은 가능하게 되고 대학의 이념을 분명히 하는 일과, 그 이념을 풀은 전체적인 대학발전 방향의 틀을 먼저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 지식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우리가 대학이념의 성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추구하는 성격과 구조,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대학의 조직과 관리의 성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좋은 지식의 추구, 좋은 지식에 의한 교육, 좋은 지식에 의한 사회기여라는 대학의 이념에 합의하고, 뚜렷하게 이해한다면 대학의 발전방향은 우선 연구와 교육의 기본단위인 학과와 학과의 질적인 향상, 학과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선을 통한 학과와 발전개념이 대학발전개념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

학과와 발전이 학과학문의 발전을 의미한다면 이번에는 학문 발전을 위한 학과학문간의 연계체계를 생각해 볼 것이다. 학문의 분화와 전문화의 한계에 모든 학문들이 처해 있는 오늘날에, 학문들의 연계성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여기서 학과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현실 분류에 따라 자연현실을 다루는 자연과학과 인간현실을 다루는 정신과학으로 크게 나누고, 자연과학은 순수자연과학과 응용과학으로, 정신과학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누는 학문분류방식에 의해서 학과들이 편제되고 있다. 사실 대학이 일반연구소와 달리 연구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학과학문들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연구되고 표현되어 학문간의 지연과 연계, 보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장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야 될 줄 안다. 학문간의 전문화와 아울러 통합화의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좀더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식의 다양화와 전문화와 함께 지식의 종합화와 통합화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도 더욱 통합적 경향을 지녀야 한다.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가 다른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교양교육의 확대와 강화, 제2외국어의 도입, 영문식 튜터시스템의 도입, 강의와 세미나식, 구두시험, 평가에 있어서의 합력·불합력에 의한 학점취득방식등도 오늘날의 학문 연구의 병행과 지식의 성격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할 줄 안다.

두기능이 분리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의 학생생활연구소를 그대로 존재시켜서 연구 기능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행·재정 제도·영역에서' '행·재정 제도'의 경우, 전체교수회의 기능을 평의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이유로, 참석률 저조, 잦은 유결, 의결의 형식화를 들고 있으나, 참석률 저조는 사전홍보의 미흡 또는 시간대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며, 잦은 유결은 참석률 저조와 관련된다. 그리고 의결의 형식화는 모든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비록 의결 과정이 일부 교수들의 발언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발언하지 않는 교수 교수 수는 그 발언을 유예하는 데도 불구하고,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는 겨우 또는 기표로 통해 의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평의회의 형식을 의결할 경우는 비록 학과대학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과대학의 수준이지 전체대학의 의결 수준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의 전임교수들의 경우

는 평의회만 존속할 경우, 대학 운영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 '직업연수 기회 확대'의 경우, 신입직원 또는 중견 간부 직원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도자 훈련(LETT: Leadership Effectiveness Training)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장기발전계획 입안자들은 자칫 지나친 의욕과 열의 때문에 타인의 조언이나 충고를 간과하기 쉽다. 어떠한 계획이나 실행도 시행착오를 거쳐 배제할 수 없는 실험, 분기회와 같이 방대한 사업인 경우 시행착오는 크나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끊임없는 속고 많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계획년도 중에 알찬 결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역에서 '학생정원'의 경우, 2001년도의 입학정원 2,760명은 그 당시 제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제주대학교 진학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며(제주대학 희망자 3,965명으로 10년전에 비해 930명 감소), 이러한 입학정원의 증가가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양적 목표에는 접근할 수 있으나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질적 목표에 이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야망과 현실의 괴리'이유가 취업학생이 소수라는 점 때문이라면, 평생교육, 개방교육,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야망과 현실의 괴리를 높여 산업체 근로자나 생활형 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학사관리·영역에서' '성적평가'의 경우, 1, 2학년은 상대평가, 3, 4학년은 절대평가로 하는 이원화 평가방법은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절대평가)과 모순되며, 원인과 결과를 따져 보면 학년간에 평가상 편차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하 ②번과 ⑤번의 진술은 상호 모순된다.

5) '연구활동 및 지원체계' 영역에서 '연구활동 여건 개선'에서 '목표의 기본방향'의 경우, 문장이 미완성되었거나(문항⑤), 목표의 제시가 중복되었거나(문항②→①), 목표 진술이 문두와 문미가 모순되어 있다(문항⑤). 그리고 '목표의 개선 내용'의 경우 는 그 진술이 개선 내용이라기 보다는 교육목표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내용과 방법'영역에서 '추진방향'의 경우 교양과정의 수준 수급은 결국 우열한 편성을 통한 수준별 강의를 한다는 것인데, 대학교육에서 이러한 강의를 실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적 필요성의 경우, 문항 ①, ②, ③은 그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오히려 그 내용은 교육목적, 대상, 상호작용, 평가방법등과 같은 특정에 따라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생정원 및 학과증설'영역에서 '학생정원'의 경우, 2001년도의 입학정원 2,760명은 그 당시 제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제주대학교 진학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며(제주대학 희망자 3,965명으로 10년전에 비해 930명 감소), 이러한 입학정원의 증가가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양적 목표에는 접근할 수 있으나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질적 목표에 이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야망과 현실의 괴리'이유가 취업학생이 소수라는 점 때문이라면, 평생교육, 개방교육,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야망과 현실의 괴리를 높여 산업체 근로자나 생활형 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제상공청회

## 학과 신설 기준·우선순위 불명확 서머스쿨 언급 없는 점 문제 야간강좌부 축소계획은 시대역행적 발상

이순형 교육대학원교수

이번에 만들어진 종합발전계획은 우리 대학의 장기교육발전계획의 일환이요 그동안 학내 관계기관 또는 교수, 많은 대학인의 비전과 예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데서 보다 큰 관심과 기대를 갖게하며 실제로 그간의 과정과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한정된 지면이라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필자의 관심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부문별 계획의 전체적 체계와 내용의 전개에 관해서이다. 계획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이상의 접근이나 그 접근에서 부딪히는 장애 또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안들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전략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는 구체적 계획들은 각기 내용이 제시되기까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각 부문별 발전의 비전(목표), 그 접근에서 당면, 예견되는 문제의 진술, 각 문제의 해결방안의 제안과 각기 이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이라는 공통된 준거가 제시되어야만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발전의 지표들이 안출될 수 있고 일관성과 각 부문간의 획일적인 관련 및 통합성을 이룩하는데 보다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부문별 각 계획내용들이 세목별 준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계획(안)의 합리성과 아울러 그 시행에 있어 많은 하점과 상호괴리를 드러내리라고 예상된다.

그 다음 각 부문별 계획내용의 주요사안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먼저, 「대학발전의 이념과 목표」에서 그 내용들은 우선 영역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각 영역의 목표들이 또한 명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술되는 대학의 이념과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나 「인류사회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향후 10년만에 요청되는 지역 사회, 국가, 인류사회에 우리대학이 기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가 진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안된 개선 내용은 내용요소가 아닌 추상적인 방향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나마 그것도 각기 다른 수준의 근거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2) 「교육내용과 방법」중 교과과정 면에서는 종전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의 4영역이 보다

세분, 이를 주제 또는 상관 형식으로 새롭게 통합하는 영역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육방법의 혁신에 대해서도 대학별 시·청각교실의 완비를 전제하여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학습시간편성방식이 보다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여건개선이 없이는 대안위하에 편성 내지 학습이 비합리적인 수업형태일 수 없다.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만하면 학습편성성을 대입단(대학단위),

분야 교육, 문화, 사회발전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사범대학 발전계획에 관계없이 「교육학 관계학과」의 발전계획도 의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가사화로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히 도내중등교육계의 전산교육원의 수요에도 감안한다면 교육대학원에 컴퓨터교육전공, 교육공학전공, 사회(성인)교육전공등의 중설이 재고되어야 한다.

한편 「학과」의 세분화를 지양하고 전향적으로 통합을 기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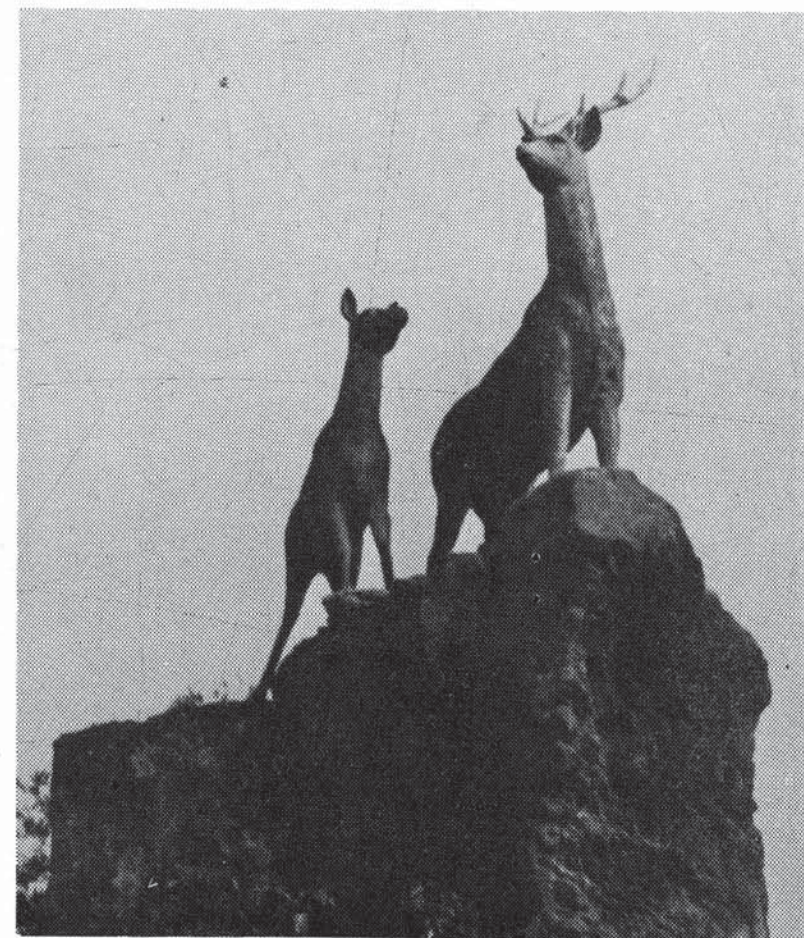
교육행정의 일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예컨대, 조교등의 전문상담요원을 이들 대학·학과 단위까지 확충하는 봉사체제의 확립이 보다 발전적이다.

6) 「학생자치활동」에서는 학생들의 면학위기조성을 우선하여 학문탐구적 성격의 학생활동 특히 외국어관계 서류의 육성에 주력하는 지원계획이 아쉽다고 본다.

7) 「행정조직과 자원부속기관」에서 대학본부의 조직은 가급적 축소사항으로 나가야 한다. 예컨대 「연구회」신설의 필요에는 공감하나 그 보다 소수행정력을 대학단위에 배분하여 하부구조(대학)의 연구·교육력을 강화해 나가는 행정지원방식이 행정의 관료화, 집권화를 막는 방식임에 유익할 필요가 있다.

야간강좌부의 축소와 주간제로의 전환 발상도 시대역행적이고 전적 대학관료로의 회귀이다. 산업사회로의 이행에서 노학병행,

◇세계적인 낙원을 꿈꾸며 개척하는 제주는 세계속의 대학을 원한다. 또, 그 가능성을 믿고 있다. (사진은 우리(학교) 상징물인 사슴상)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사대부중고의 운영은 사대교수진과의 연계책임하에 도내 중등교육혁신프로그램을 연구·시범하는 연구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본래의 계획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일반 인문계고교와 다를 바 없는 교육운영체제라면 이를 공립고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8) 「행·재정제도」에서 전체교수회의의 권한을 축소하고 평의회로 그 권한을 대신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의견권을 부여한다고 하겠는데 평의회로 이관된 심의사항과 극히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 의아해진다. 평의회의 중요정책을 입찰적으로 심도있게 논의, 제안하는 범위에서 제안권만을 갖게하는 한정적 성격의 심의

기관으로 하고 교수회의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을 모색해볼 것이 보다 좋을 것이다.

또한 각 「대학원의 행정실」은 분리·운영하기보다 여타 사립대학의 경우처럼 통합운영하는 것이 인력활동, 예산절감의 면에서 바람직하다.

9) 마지막으로 기획실의 기능을 분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에 의하면 「연구조직은 학문분야별 특별과제별로 조직한다」고 하였는데 본교의 주요교육정책의 수립, 내용방법의 혁신등을 위한 교육혁신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행정정보과기인 기획실의 수준으로서서는 이의 충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기획부서에서 연구기능은 이를 분리, 본교 혁신을 위한 특별연구과제를 본

문적으로 연구, 제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교육문제연구소」등을 신설하는 것이 긴급하다.

예컨대, 우리학교가 담담하고 있는 현안인 전후기 분할모집문제, 참여명에 달하는 휴학생문제, 본도 우수학생 유치방안, 구대의 연한 시간표 편성문제, 자체평가 연구문제등 기획실내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허다하다. 이들에 대한 내적 혁신기능이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없게 새로운 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대학의 전문성을 스스로 외면하는 일이 되고 만다.

본교 중추대학인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의 학문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들 대학(원)관련연구소의 신설은 시급한 과제이다.

## 미래예측에 대한 관심 소홀 신설예정학과 면밀한 검토 없어 사양길 걷는 학과 신설은 이해 안돼

김건일 동문·사회학과 졸업

제주대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거는 제주의 기대는 자못 크다. 예측이 불가능하리 만큼 급속히 변하는 사회, 가치관등의 척도마저 혼란스러운 정도로 슬며시 뒤바뀌는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의 입장에서 그나마 기밀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한 생명력을 지닌 대학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안은 이런 점에서 세계적 보편성 이념의 토대위에 제주도라는 입지적 특수성에 걸맞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앞으로 펼쳐질 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미래예측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소홀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과대학 학과의 신설문제는 더욱 그렇다.

계획안은 오는 2천1년까지의 과목별 3개 대학과 인류학과등 19개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770명 늘어난 2천7백60명으로 잡고 있다.

문제는 신설되는 대학이나 학과가 아니라 신설 예정인 학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이 계획의 목표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신설예정인 학과와 지역의 부합성을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장서의 기준만 확보와 양질의 추상적 개념보다는 이용 주체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서구입의 방법 및 기준이 발전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한 예로 도서 대출창고 안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장서구입요구를 비추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도서관이 이를 참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더불어 학문의 메카인 도서관은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장기 발전계획에 환경적 개념도 포함시켜야 하리라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교의 위상이 점차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대학 장기발전계획(안)이 대학자체의 연구진에 의해서 수립되었다는 자체를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세계속의 대학을 추구하는 제주대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대학의 학과와는 구별되는 특색있는 학과의 신설이 바

람직하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정세로 볼 때 '불어불문'문화라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러시아어학이나 러시아문학, 혹은 아프리카와 관련된 어학이, 신문방송학보다는 인간관계학이나 정치사회학, 또는 홍보학과와 설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또 공과대학의 건축공학과 보다는 지역계획학과나 도시공학과가 시급하다고 보아지며 제주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공학의 세분과 작업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인문대학에서 외국어대학을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을 해

안과대학이라고 한다면 외국어대학은 제주의 미래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대학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의 한·소정상회담은 제주를 세계평화의 상징적인 섬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고 다가오는 태평양시대의 정치요람으로서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경제에 대비한 인재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어통시통역대학원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대학원신설은 농업과 수해안 공업분야의 전문인 재교육을 위한 정원 220명의 산업대학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주시와 3차산업인구의 증가를 예상한다면 통시통역학의 양성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학과명칭을 변경하거나 학과정원의 증감은 학과에 자율성을 부여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점 역시 이 계획의 소홀함을 드러낸다.

적어도 10년에 걸쳐 시행될 종합발전계획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효과연도인 2천1년의 계획지표를 보면 지난 89년 제주도내 고용인

구비율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4.3%이던 것에 비해 2천1년에는 37.7%로 무려 16.6%가 줄어들고 그만큼 3차 산업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1차산업과 관련된 학과와 조정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학과 자율성에 맡긴다는 이유로 지나쳐 버린 것은 계획의 치밀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학과와 정원조정 문제로 마한 가지이다. 현재 전국의 대학에서는 40명정도 돼 있는 학과 정원을 30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정원으로 관련학과를 신설하는 추세로 알고 있다.

이를 적용해서 2천1년에 제주대학교 73개 학과의 정원을 40명에서 30명씩으로 줄인다면 24개 학과를 더 신설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그것은 다양화되고 세분화될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이 계획에서 교수정원을 늘려 교수방법의 질을 높인다는 점은 반영하면서도 학생정원을 줄여 학습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은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모든 발전계획은 현재를 시점으로 미래목표에 맞게 짜여진다. 그러나 나는 미래를 시점으로 거꾸로 짜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특히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은 현재의 사고를 크게 뒤바뀌게 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 가운데 대학과 학과신설에 대한 계획은 학과의 통제권 등의 조정과 정원조정,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과신설의 문제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82년 제주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되면서부터 '세계속의 대학'을 표방해 왔다. 그것은 꿈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실현 가능한 꿈이라고 믿는다.

미래사회를 개척하려는 제대의 의지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당국의 노력이 모자랄 때 세계속의 대학은 결코 모호하게 끝나고 사라질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제주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도 세계속의 대학을 지향하는 위상이 담겨져야 하고, 그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낙원을 꿈꾸며 개척하는 제주는 세계속의 대학을 원한다. 또, 그 가능성을 믿고 있다.

## 연구소자율성 제약해선 안돼 각 연구소간 연구분야 재조정 필요

강영순 탐라문화연구소소장

90년 4월에 제주대학교 자체평가연구가 이루어진 후, 91년 3월에 대학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급기야 종합발전계획(안)이 대학자체의 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 일이다. 이는 지방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이에따른 도내 우위의 국립대학으로서 제주지역발전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대학 본연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본교의 자주적 노력의 소산이다.

이번 계획안은 비록 학사부(學務部)에 국한되어 세워졌지만 대학 본연의 목적이 비추어 볼 때 추후 부수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태·중·일·미·일·대·장기발전계획수립에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된다.

따라서 현 계획안의 연구활동 및 지원체제(특히 연구소 및 도서관)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소의 발전계획안은 크게 ①연구처를 두어 연구소를 관장 ②학술연구위원회를 구성 연구비 관리 및 업적 평가 ③유사연구소의 통·폐합 ④연구소별 중점 연구과제 창출 ⑤연구소의 특성화 분야 선정으로 집약되고 있다.

현 계획안에 의하면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인력관리에 있어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물론 대학자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인력관리는 일

정한 중앙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가 연구소의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제약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연구소 연구분야의 재정지출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장기발전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각 연구소의 지원예산은 보면 학술지 발간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예산을 통해서만 개별 연구소는 발표지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연구소 자체 프로젝트의 수행이나 장기발전전망에 모연할 수 밖에 없다. 연구소의 설립목적들이 학술진흥과 지역사회발전에의 공헌에 있는데 이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너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각 연구소는 연구소 인력 및 운영비의 중앙적 통제와 연구활동비의 자율성을 보장(재정지출도 확보)을 해주는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발전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 한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우선 유사연구소의 통·폐합과 더불어 각 연구소 연구활동분야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탐라문화연구소의 사회분과, 법분과, 지역개발분과를 관련연구소로 이관)

둘째, 현재 각 단과대학에 산재해있는 연구소(실현, 실습기자재

를 보유한 연구소 제외)들을 연구소(연구과)의 통제가 수월한 형태로 이전,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케하여 인력을 줄이고 재정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운영비의 낭비를 제거한다.

셋째, 각 연구소의 재정지출도(연구활동분야)를 높이기 위하여 각 연구소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장기 중점연구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구비를 연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한다. 그 반면은 ①우선 향후 5년간 년간 지원규모를 각 연구소의 프로젝트에 따라 일정액을 배분 지원하고 ② 각 연구소에서 연구 조사활동의 출판부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대학 출판부의 명의로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년간 단행본을 유가(有價)로 발간한다. ③단행본 발간에 따른 발간은 정액 연구소에 자체적립시킨다. ④각 연구소는 자체 재정지출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으로 외부로부터 수탁연구비 등 일정액의 자체 적립 및 기타 자구적 노력(예, 고대 민족문화연구소의 자체 회원제도)을 계획·수행한다.

⑤1차 재정지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끝나는 96년에 각 연구소의 재정지출도 정도를 학술연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연구분야의 재정지출이 가능한 연구소별로 우선순위를 선정, 중점 지원하고 우점 전 연구소의 재정지출도를 높여 나간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한시제 학습의 필요증대, 기능사, 주부, 학령기를 놓친 성인등의 잠재력 교육수요를 고려할 때 이들의 학사과정용 위한 확정적 개방적 대학운영체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서머스쿨제」의 발전계획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도 크게 문제된다. 야간강좌와 야간의 한시제, 저소득층으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개방이라면 서머스쿨제에는 전일제고교와 다를 바 없는 교육운영체제라면 이를 공립고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안은 이런 점에서 세계적 보편성 이념의 토대위에 제주도라는 입지적 특수성에 걸맞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앞으로 펼쳐질 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미래예측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소홀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과대학 학과의 신설문제는 더욱 그렇다.

계획안은 오는 2천1년까지의 과목별 3개 대학과 인류학과등 19개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770명 늘어난 2천7백60명으로 잡고 있다.

문제는 신설되는 대학이나 학과가 아니라 신설 예정인 학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이 계획의 목표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신설예정인 학과와 지역의 부합성을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장서의 기준만 확보와 양질의 추상적 개념보다는 이용 주체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서구입의 방법 및 기준이 발전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한 예로 도서 대출창고 안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장서구입요구를 비추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도서관이 이를 참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더불어 학문의 메카인 도서관은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장기 발전계획에 환경적 개념도 포함시켜야 하리라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교의 위상이 점차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대학 장기발전계획(안)이 대학자체의 연구진에 의해서 수립되었다는 자체를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세계속의 대학을 추구하는 제주대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대학의 학과와는 구별되는 특색있는 학과의 신설이 바

## 원고를 모읍니다

학교발전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 △교수·학생논문(30매내외)
- △時 論(20매내외)
- △독자의 소리(3~5매내외)
- △공개결의서(3매내외)
- △기타:시·수필·풍토



## 본교종합발전계획 지상공청회

# 계획전체에 국가이데올로기 만연 학생들을 노동력 측면에서만 파악



송태경

어업학과

### I. 서론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보다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은 어떤 논의를 시작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세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고자들의 문제들이었다.

해결이 던진 질문, 즉 (제주대학교에)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데 대한 대답으로서, 92~2001년까지 학교의 교육과 경영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는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안 요지'가 지금 우리앞에 던져졌다.

이 계획안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찾아보기 힘들며, 단순한 대학교의 양적 팽창과 시대발전이 뒤떨어진 패배성이 짙게 깔려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몇가지 지적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물론 구체적인 세부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지는 충분한 이유가 못된다는 스미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기로 하고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제주대학교의 이념과 목표에 대해서

추상적인 용어의 나열이긴 하지만 제주대학교의 이념으로 내세우는 것은 진리와 정의, 그리고 자아와 진취성에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을 구현하는 장소는 한반도라는 좁은 테두리가 아니라,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회 즉 지구촌이라 불리우는 인간들의 사회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들은 이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수와 학생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 나아가 대학도 하나의 사회조직

체이고 유기적 본연에 따라 이루어졌음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러한 유기적 구성체의 효율이 증대되면 증대될 수록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그 비중은 높아질 정도로 향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칼릴레오의 저 유명한 종교재판을 기억하지 않고서라도 진리라는 대초의 이념이 변질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계획안에 흐르는 제주대학교의 이념을 변질되지 않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변질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첫째: 시대에 뒤쳐진 국가이데올로기가, 계획안전체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대학교의 이념을 실현할 구성원중에서 학생들은 노동력의 측면에서만 파악되고 있다.

셋째: 학생에 대한 통제와 측면, 좀더 노골적으로는 지배복종의 논리가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

이상 세가지 내용을 증명하는 과정자체가 곧 계획안에서의 여러 불합리한 요소들을 들추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된다.

### III. 국가이데올로기는 계획안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

우선 계획안에서 국가에 대한 언급은 "2000년대에는 대한발전과 국가발전의 상호작용이 점차 증대되고~"라는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내용에서 돌출되는데, 이러한 전망은 그 자체에서부터 틀리고 있다. 국가의 고갈인력 수급정책에 맞물려 단순히 제주대학교의 양적 팽창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한가지 쪼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국가발전이라는 개념을 대학발전과는 양립할 수 없는, 그리고 또한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서 남한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북한에서도 활동되어져 왔으며, 더욱이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인 제주대학교가 이러한 전망에 발맞추어 "민족통일을 대비한 가치교육의 증대"라는 교육의 목표와 발전 방향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의 판단으로서의 지나치게 회의적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계획안은 국가라는 개념과 정부라는 개념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트집거리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즉 계획안은 정부의 고갈인력 수급정책을 국가의 고갈인력 수급정책이라고 단정히 지적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것에 따라 작성되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자신의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가치대로 자유롭게 판매함으로써 개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좌우되는 정부의 고갈인력 수급정책에 호응해 버렸을 경우에는 개인들이 풍요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향한 질적인 총량의 측면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80년대에 급팽창하기 시작한 제주대학교의 학과들은 거의 대부분 이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채 진행되어 왔다.

나는 대학신설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양적팽창에 찬성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테면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2단계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안 자체가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각 단과대학에 설치되는 과제도서실·독서실·고시실 등 학생들의 면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정도의 기초적인 형태도 97년 이후에나 실시할 수 있다는 정말 어설픈기까지 한 주장.

### IV. 학생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편제되어져야 할 노동력의 측면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가?

2000년대의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살아갈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대학을 토대로한 양질적 발전이 충족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충족조건은 어떤 특정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각화화된 인격체이어야 할 것이다.

계획안에 지적하고 있듯이 그 전문가 양성은 이미 대학교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이제껏 진행되어온 양적 팽창의 요소에 '기술·자본집약적'이라는 측면을 선택과제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진 교육 총원계획을 통합하고 더 양질적이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부차적인 요소도 마찬가지로 앞당겨서 충족되어야 한다.

이때만이 정부정책상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원으로서의 대학의

탈을 벗고 현재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물적토대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질적인 선택과제들이 이제껏 누누히 외쳤던 대대적 재정부족을 이유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2001년에 가서도 총 재적 학생수만 3천명 정도로 팽창시킬 뿐 계획안이 제시하는 2001년의 제주대학교의 이상은 그날 뜬구름에 불과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열려가 학생들을 노동력공급의 측면에서만 파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이며, 해질이 말하는 그 질적인 발전은 매우 더디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

### V. 계획안에서 보여지는 지배와 복종이 논리.

아마도 대부분은 내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학생회측과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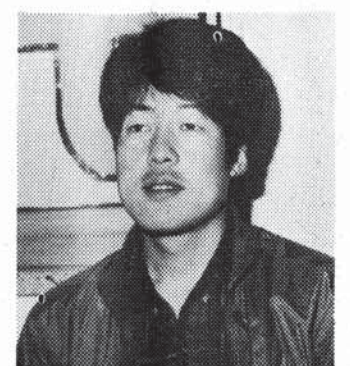
우선 목표의 개선내용을 보면 학교의 교육목적, 목적에 부응하는 교과과정과 강의 및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을 검토하는 부분을 교수의 교수의 권한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대학교에서 '학원자주화' 장이란 불리우는 집단적인 갈등 양상들이 교과과정에 대한 권한의 독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특히 '지도교수가 있는 서여를에 대해서'는 대학당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과의 활동에서의 교수와 학생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한가지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는 학생회산하의 '지역사회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사실 이 기구는 동아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되었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들에 대한 미숙하지만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알고 있다. 아마도 이 기구에 지도교수가 있었다면 이 기구의 활동은 지극히 미미했을 것이다. 오히려 유기적이긴 하지만 여러 교수님들의 자요초에 대한 조그만 도움들이 제주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좀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이런 기구 혹은 이와 유사한 동아리들이 지도교수가 없다고 해서 대학당국에서 그 지원에 대해 저들을 둔다면 이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일이며, 한국사회의 이례가 맹아적으로 싹트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성의 신념을 억제하려는 지배의 논리로 관철되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과의 활동에서의 교수와 학생



서 제기하고 싶다. 그리고 텅빈 아래에 계획적인 조정사업등도 면학 분위기 조성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학과중심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학교는 아무런 대책(변화에 필요한 시설 및 졸업생 진로)이 없이 과단 중심에서 실험실, 강의실없이 많은 학우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방대학이라는 단점으로 취업이 힘든 상태에서 비싼 학비와 과를 졸업해 놓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번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과단 중심이 아니라 향후 대학에 대하여 준비를 해놓고 중심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종합발전계획이 학원자주화의 관점에서 세워졌는가의 문제이다. 지금의 대학이 교육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전달하는 체계, 대학을 단지 취업의 기회에 필요한 곳이라는 현재적 조건 그리고 문교부의 시너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번 종합 발전계획에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학원자주화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학원의 자주화를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번 종합발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미비하나 학생복지 및 학원자주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개 전체적으로 실험당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구체성이 없다는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인 것 같다. 위주로 볼 때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과대·농대·해대 학생들을 위해 각 단과에 대한 과제도서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전공서적을 비치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과제도서실은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자연과학 도서관 신축등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방안이 대대



과의활동에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의 연계라는 추상적인 내용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복해야 할 것이다.

### VI. 부전공과 야간강좌부에 대해

'부전공 시간표를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제도권교육에 매몰된 현재의 교육제도에서 극소수이지만 제도의 회색양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측면일 것이다. 그러나 계획안에서의 내용이상으로 다뤄져야 할 듯하다.

그 첫째는 제도적 제약요소로서 작용하는 형태를 제거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수신청서' 작성과 같은 것일 것이다. 수강신청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이미 마무리 되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자신이 소속한 학과와 유사한 계열이 아닌 부전공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공교과목 충족확정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학문 또한 System개념으로 파악했을 때 유사계열이라고 해도 제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학문은 상호관계를 맺기 마련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

문에 이렇듯 세세한 부분에도 합리적인 보완작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야간강좌부에 대한 내용(계획안 p.46)도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듯하다.

'대학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요소들은 분명히 개선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획안에서의 야간강좌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를 나는 대학의 양적팽창에만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듯하다.

### VII. 결론

결론을 대신해서 '재정제도의 개선'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재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안이 지적하는 내용은 지나치게 유치하다.

등록금의 약 30%는 수업료라는 명목으로 국고에 귀속되고 상부권력에서 재편되어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각학교에 분담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학 자율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실일 것이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현재 총 재적학생수를 7천명으

로 잡고 수업료를 2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국고로 귀속되는 액수는 한학기에 14억, 그리고 1년에 28억원이 될 것이다.

계획안 그대로 양적인 팽창이 되고 약 3천명 정도의 재적학생수가 증가한다면 그 액수는 더 불어날 것이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기성회비를 계산해보면 똑같은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요인때문에 그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팽창에 매몰되어 헤어나올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나 이런 불합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극을 줄여야!

현실사회에서 통용되는 이 낡은 슬로건을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위성에 의존하는 '대학 발전기금 조성사업'이라는 형식적인 언어로는 충족될 수 없다고 본다.

충족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당하게 제공(또는 판매)하는 것일 것이다. 대학은 사회의 유기적 구성체라는 지위를 이미 했었다. 또한 계획안에서도 누누히 지적하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라는 설명이 돌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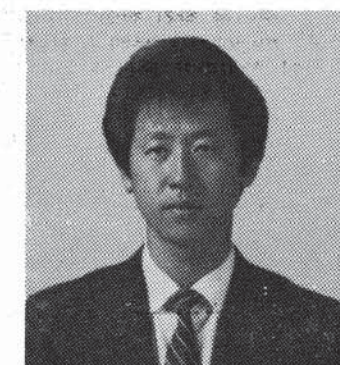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자원의 제공이며, 대학의 재정충당과도 직결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후기산업사회'에 적응할 인격을 양성하는데도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국제사회'라는 표현을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국제화'를 '유지'하는 정도로 귀속시킬 수 있었지만 '산학협동'의 개념에서 적극적인 자원의 제공을 모색한다면, 질적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학재정충원은 가능할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그것은 현재의 학교소비 조합에 대한 것으로 계획안에서는 2단계사업에서 '독립채산제' 채택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현재의 형식적인 소비조합을 영을 실질적인 소비조합영으로 철저하게 재편하고 학교당국의 소비조합에 대한 관여는 철저한 감사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학부와 대학원 연계방안 마련 필요 타대학 대학원과의 협력체제 강화해야

### 한기홍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교수에 따라서 어떤 학기에는 대학원 과목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대학원의 학제교과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의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제와 승전대, 인화대, 중앙대의 대학원이 중심이 된 대학원 간협력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지방의 일부 대학원간에도 협력체제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대학원교과의 학제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대학원간의 협력체제를 통한 이 제도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학원 교육의 패배성이 일부 극복될 수 있으며 재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특수과목의 수강이 용이해지는 점이다. 아울러 부족하고의 난점이 다소 해소될 뿐 아니라 대학원 재학생의 과목이 용이하게 수강가능한 시설, 도서관, 실험기구의 공동 이용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과목에 학문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자원의 사제 및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제도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강의시간 중복조정의 곤란, 타대학원 원리의 불일치, 학과구분 확대에 의한 수업 부담의 증가, 교과과정의 내용이나 수준, 학문적 배경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대학원 협력체제를 실시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방안을 대학원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았는데 대학원의 학제화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학은 자체내의 연구과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 종합적인 검토 후 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방안을 대학원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았는데 대학원의 학제화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학은 자체내의 연구과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 종합적인 검토 후 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방안을 대학원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았는데 대학원의 학제화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학은 자체내의 연구과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 종합적인 검토 후 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방안을 대학원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았는데 대학원의 학제화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학은 자체내의 연구과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 종합적인 검토 후 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방안을 대학원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았는데 대학원의 학제화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학은 자체내의 연구과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 종합적인 검토 후 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 학교운영에 교수·학생 참여 방안 미흡 현실무시한 계획... 학원자주화 노력 소홀

### 양성봉

인권복지위원장

지난 8월17일 우리대학교 종합발전계획이 전격 발표되었다. 이 시안은 9월말까지 사안별로 여론수렴을 공청회를 거쳐 편의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된다고 한다.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앞으로 우리대학교의 모든 발전 과정에서 이 발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때 우리대학에서는 실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참여여야 하는가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보고, 그속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학원의 주인인 학생·교직원·교수를 동등하게 주인으로 서게할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학교운영에 있어 학교당국의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됐지만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내용속에 교수회의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권한을 축소하고 편의회를 강화하리라 했었는데 교수회의는 교수들이 의견을 모아 대학운영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이 대학운영이 참여할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학생도 학원의 진정한 주인이라 했을때 학원의 운영에 목소리를 반영할 정책·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김형욱 총장님께서 취임하시어 약속했던 대학자치운영회의회전설은 어디에 있는가?

둘째로, 실제로 거론한 발전계획안에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복지부에서 한정시켜 보더라도 금방 드러난다.

지금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식수대가 없어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공강시간에 친구와 같이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 햇빛만 내리 쬐는 곳을 찾아다니기가 바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대 야외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교풍·풍신의 편의 증진에서 보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면 1단계에서 교내 자동전화의



# 복지시설부족...불만고조

## 동원-‘담배자판기·식수대 설치’건의 학교-‘소요예산 확보·적절한 조치’약속

교내의 각종 후생복지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여론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9월2일 동아리연합회 인권복지부(부장 강창성 등)에서는 그간의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당국에 복지문제와 관련한 불만사항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 요구사항을 보면 △학생회관 내 담배·커피자판기 설치 △학생회관 주변에 식수대 설치 △버스정류장 및 동아리방 주변에 휴식용 설치 △교내차량제한 △학생회관 관리인 증원 △소비조합이이익여금 분배 △식당음식물 폐기물 모두 10개항인데

이와 같은 요구를 접한 학교당국에서는 동원 인권복지부에 회신한 답변서를 통해 ‘소요예산 확보한후 각 부서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답변내용도표참조)

이번 동원의 요구사항에도 나타났듯이 교내 자판기 설치하는 매우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현재 교내에 설치된 자판기는 모두 29대(커피 19, 라면 2, 음료수 5, 화장지 2)이지만 담배자판기들은 하나도 없으며 게다가 날로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자판기 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비교적 넓은 학교

공간에 비해 편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시설과 같은 공간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내전입로에도 종합계시관을 확대설치하는 문제와 현수막 길이등도 설치해 현재 가로수와 담벽등에 무질서하게 걸려지고 있는 각종 현수막도 질서 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같은 각종 복지문제에 대한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성의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인북위 접수된 습득물들.

## 소지품 분실신고 늘어 시계·지갑등이 대부분 10여개품목 인북위에 보관중

지난 1학기중 인권복지위원회(위원장 양성봉 통공4)에 접수된 분실물 신고가 60여건에 이르는데다 습득물도 20여건 가량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북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습득물들의 대부분이 지갑(27건), 시계(17건)류에 다 가파(12건)이나 책(3건) 등(2건)등도 나타났다. 분실장소는 학생회관이나 강의실 주변, 운동장 등인데 간혹 버스정류장이나 시내에서 분실돼 신고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습득물 접수된 물건들중 주인에게 되돌아 가거나 습득자에게 돌려준 것은 10여건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는 인북위에 계속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습득물 접수시 소지품을 통해 공고한다는 원리를 세워놓고 있으나 학우들의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습득물 전사함을 본관에 설치하여 보관중인 습득물들을 전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총장에게 공개서한 발송 고창훈교수등 ‘특별법 토론회’ 문제로 김총장 ‘연구소들이 주관해 주길’요청

지난 9월5일 고창훈(행정학과 부교수) 한석지(사회교육과 조교수)교수가 김영욱 총장에게 보낸 공개서한과 관련한 특별법 찬반 공개토론회가 9월11일 이전에 성사되기를 어려워 것으로 보인다.

고창훈·한석지 양교수는 공개서한을 통해 김총장에게 ‘우리 양인은 특별법에 관한

대목중 총장님께서 제안한 특별법 찬반 공개토론회 개최를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수들과 논의 끝에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9월11일 이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9월7일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공개서한과 관련 김총장은 “특별법 찬반 공개토론회는 총장이 직접 나서서 주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 “이러한 문제를 본교 연구소들이 나서서 몇 개의 관련 연구소가 나서서 주관하고 참석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총장은 또 “기초위원회에 참여하고 찬성하는 교수들의 ‘특별법’을 반대하는 교수들의 반대논리를 약하고 공청회를 회피하기 때문에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이 잘못 와전되었음을 “을”을 지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고창훈·한석지 양교수는 이 공개서한에서 ‘토론 내용은 대대신문에 게재하고 교육방송국에 방송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本 社 辭 令

기자 김미경  
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  
(9월 10일자)



## 교수동정

▲현해남(농화학과)전임강사는 9월6일 농업기술의 혁신을 위해 서귀포농협이 개최한 제3회 새농업기술 강좌에서 ‘새농업 기술’에 대해 강연함.

▲최치규(물리학과)부교수=지난 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미국·소련 등 1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첨단 신소재개발’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Formation and Epitaxial Growth of Titanium-Disilicide”란 논문 발표.

## 교직원동정

▲박상훈(학생처 학생과), 오경석(영어영문학과), 강명화(물리학과), 김희자(생물학과)는 조교에 임함(9월1일자).

## 학과 소식

▲축산학과 전학년=오는 9월 12·13일 양일간 표선·남원 일대에서 ‘축산관련 업체 견학 및 야생조식 생애 조사’예정.

▲농화학과 전학년=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중문 야생조식에서 수련회를 가질 예정.

## 자전거 도일주 체육학과등

▲체육학과·체육교육과 4학년=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코스로 체육학과 전학우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올림픽 3주년기념행사대회 자전거로 도일주를 할 예정.

▲경제학과(회장 강문식 경제3)=오는 9월14일 ‘목신’의 오후에서 끝날 예정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김도성(경제1)학우 돕기 일일차집회를 갖는다.

▲국민윤리교육과 4명=지난 9월7일과 8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제3기 전국국민윤리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연합’출발식에 참석.

## 학술제 개최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오는 9월16일과 17일 양일간 여학생회관에서 “제주도내 영양섭취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제를 연다.

## 제1회 졸업전 개최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학우들은 9월 9일부터 9월14일까지 6일간 문예회관에서 ‘제1회 졸업전’을 갖고 있다.

이번 졸업작품전에서는 시각디자인·분야의 ‘인한백화점 Display계획’(현우준)의 7점, 공업디자인 분야에 ‘완두콩의 조합 MODULE’을 도

입한 CIRCLE에 관한 연구’(김민정)의 6점, 산업공예디자인 분야에 ‘비의 숨결’(김현애)의 8점등 총 25점이 출품한 24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 세미나·강연

▲산학협동연구회 연구발표회  
△주제=제주도 지하수개발 실태와 해결방향 △일시=9월12일 오후 6시30분 △장소=법정대 증강당.

## 학술세미나 개최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9월 3일 10시 공대세미나실에서 ‘원격탐지’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개최 예정.

## 공연·전시

▲기관공학과=오는 9월17일부터 18일까지 7동1층 기관공학과 각 실험실 및 실험실에서 “실험기자재 전시 및 비품수리”를 실시한다.

▲분재연구회 창립 9주년 기념 작품전 △기간=9월12일부터 15일까지 △장소=여학생회관, 다예 커피숍(중앙로).

▲극예술연구회 ‘제14회 하계 work-shop’  
△작품=‘영웅연습’(서울인요연구회 아리랑 공동창작, 김정은 연출) △일시=9월10일 3시·6시 △장소=법정대 증강당

▲제주 YMCA·한소리회 ‘제1회 수화발표제’  
△일시=9월14일 오후7시 △장소=제주YMCA 3층 강당 △주최=제주YMCA

## 동아리 소식

▲달리다(야간강좌부 기독교학생회) ‘수재인들끼리 커피 대방사’  
△일시=9월11일 오후6시 △장소=야외음악당

▲장애인문제연구회 ‘제2회 창립제’  
△일시=9월16일부터 20일까지 △장소=본관로비(비디오상영), 법정대증강당(세미나), 야외박물관(사진전)

## 게시판

▲‘행정연구’ 제3호 발간을 위한 원고 모집

## 제39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연기

- 응시자격: 우리학교를 사랑하는 1학년
- 모집인원: 00명(일반·사건·특기)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통(우리학교 신문사 사정장 양식, 편집국에서 배부함)
- 시험과목: 1차-작문, 상식 2차-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9월14일(토)까지 우리학교 신문사 편집국(법정대2층)

## 제대신문사

# 학내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및 답변

| 제안 내용                                                                       | 답변 내용                                                                                                                                                                     |
|-----------------------------------------------------------------------------|---------------------------------------------------------------------------------------------------------------------------------------------------------------------------|
| 문1) 학생회관내 담배, 커피자판기 설치요청                                                    | ○ 학생회관내 담배자판기 설치문제가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91년 9월중 자판기 설치는 불가하며 한국담배인삼공사에 협조요청하여 '91.11월말경 담배자판기를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그때까지만이라도 이용에 다소 불편하여도 법정대, 경상대, 도서관배점이 야간 20시까지 판매하고 있으니 당분간 이용 바람. |
| 문2) 학생회관 주변에 식수대 설치요구                                                       | ○ 학생회관에 커피자판기 설치하는 각대학도 공히 마찬가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소비조합 예산상 정리가 불가하며 근거리에 위치한 사범대학 자판기를 이용하기 바람. (후생과)                                                                       |
| 문3) 버스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이 작으므로 해서 주변이 더럽습니다. 보다 큰 스탠드형 휴지통 설치가 시급합니다.             | ○ 신축학생회관 주변등 캠퍼스내 종합적인 음수대 설치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계획수립 및 소요예산 확보한후 시행할 것임. (시설과)                                                                                                 |
| 문4) 신축동아리방 외부에 대형 휴지통 설치요청                                                  | ○ 버스정류장 부근 쓰레기통 설치 문제는 관계당국(제주시청)에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설치되기전까지는 플라스틱 대형 휴지통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총무과)                                                                      |
| 문5) 학내(민주관장주변)에 차량이 자주 통행하므로 이따금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차량통과를 못하게 장애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 ○ 학생들이 신축 동아리방 주변환경 청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구입하여 설치하겠음. (학생과)                                                                                                                |
|                                                                             | ○ 학내 도로중 일부도로를 지난해부터 학내 여론을 수렴한 후에 차량을 통제하여 왔으며 본관과 학생회관 앞 도로는 학내중심도로로 주차공간 및 차량통행 도로로 이용되는 실정인 바 현실적으로 차량통행은 어려우며 동구간에 대하여 감속운행을 하도록 '서행'표시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총무과)            |

|                                                 |                                                                                                                                                                  |
|-------------------------------------------------|------------------------------------------------------------------------------------------------------------------------------------------------------------------|
| 문6) 학생회관 관리인 1명 증원요청                            | ○ 기성회직원 정원이 동결되고 기구, 조직이 확대되면, 신설로 인한 증원요인은 계속 증가 추세이어서 즉시 증원은 곤란하나 '92학년도 예산편성과정 원상조정을 고려하여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총무과)                                              |
| 문7) 소비조합 이익잉여금 학생측과 분할 분배('89, '90 년도 정외금 사용용도) | ○ 소비조합 운영은 학생이사가 참여한 소비조합 이사회(교수 6인, 교직원 4인, 학생대표 6인)에서 중요 심의사항을 의결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89, '90년도 이익잉여금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별첨자료와 같이 처분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문8) 학생회관 청소비품 요청                                | ○ 청소비품은 공문으로 요청하면 예산부서인 경리과와 협의하여 9월 상순까지는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후생과)                                                                                                |
| 문9) 점심시간이 되면 혼잡, 식비인상추진 미흡, 식당안 불결              | ○ 학생회관이 협소하여 점심시간에 교직원, 학생 등 4~5천여명이 이용함에 따라 혼잡을 이루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작은공간에 많은 인원은 불가피한 실정임. '92년도말 신축 학생회관이 준공되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
|                                                 | ○ 식비인상추진 소비조합에서는 주식물인 쌀을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바뀌어서 배식하고 있으며 반찬의 종류는 전보다 향상시키고 있으나 폭등하는 물가인상으로 대폭적인 절감은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식사재료의 공개경쟁 입찰시행으로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식단의 개발에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                                                 | 특히 면류에 있어서도 튀김국수, 유부국수를 주 3~4회 새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개발하였음.                                                                                                          |
|                                                 | ○ 식당내부의 위생관계도 청결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                                                 | -잔반 처리하는 곳에 칸막이 설치                                                                                                                                               |
|                                                 | -자외선 쬔 소독기 구입 설치                                                                                                                                                 |
|                                                 | -내프킨 사용                                                                                                                                                          |
|                                                 | -학생회관 방역소독 및 내부도색                                                                                                                                                |
|                                                 | (후생과)                                                                                                                                                            |
| 문10) 앰프 및 스피커 구입에 따른 재정지출요청                     | ○ 앰프 및 스피커 구입시, 재정 지원은 불가함. (학생과)                                                                                                                                |

# 濟州散調

## 姜通源 詩集

- 210면
- 2,500원



이 책은 자연사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존재론적 죽음 또는 사회화경과 인간의正義, 윤리의식 그리고 인간과 神, 초월자에 대한 인식론적 물음 등등의 소재와 내용들에 관한 것이 主調를 이룬다.

## 志成文化社



## 특별법 특위 구성시급

분과주의에서 벗어나  
단일대오 건설해야

거친 바람과 황무지인 돌밭속에서 연자바라로 공동체의 삶을 누려온 이곳 제주도 가 언제부터인가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지면서 이제는 도민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자연은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물질문명에 쫓겨 더 이상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는 제주도.

어떤 때는 정권과 싸우면서 또는 제국주의와 싸우면서 지켜온 이곳 제주도 개발의 불이 일어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또다른 탄압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다름아닌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불타는 도개발이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4·3탄압'을 방불케 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2차 종합개발계획', 얼마전까지 급파와 복춘리 주민들의 골짜기 건설 반대 투쟁등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행정권과 자본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대중적 정치투쟁으로까지 조직화해 준비와 결의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제주상황을 보면 '특별법 제정 반대 범도민회'가 결성되어 1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각 지역별 설명회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학내에서는 학과별, 동아리별로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에서 반대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공개화되고 있다. 이시점에서 운동진영에서는 이를 반파소, 반독점전선으로 이끌어나갈 준비가 소홀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상황을 돌파하는 선명한 방향성과 물리적 기초한 강력한 기두투쟁의 대외형성을 통하여 대중적 자신감과 행동의지를 촉발시켜 남한반도 대중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임무로 주어진다.

특히 이러한 임무는 청년학생운동에 있어서 더욱 요구된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운동은 가히 전체학생운동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남한반도 학생운동의 기동축을 담당해 온 학생운동의 중심이었던 대외 투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이시점에서 운동진영에서는 이를 반파소, 반독점전선으로 이끌어나갈 준비가 소홀한 상태이다.

그러나 대중적 불만과 분노로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전투력을 집중화해서 학생운동의 중심이었던 대외 투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이시점에서 운동진영에서는 이를 반파소, 반독점전선으로 이끌어나갈 준비가 소홀한 상태이다.

지금처럼 깊은 고민도 없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누군가가 제시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관자적인 태도나 학생운동의 침체원인을 대중의 무관심 탓이나 조직역량의 부족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만연해 있는 조직에 대한 관념적 분과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운동의 질적변화를 위하여 단일한 대오를 건설하여야 한다.

학생운동의 역할은 첫째로 민중 생존권 지원 투쟁, 둘째로 노동계급의 당파성으로 무장한 선진화투쟁의 배출, 셋째로 변혁을 위한 정치투쟁의 선도등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의 두가지를 극복해내야 한다.

진실로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운동가라면 사상체계보다는 변혁운동의 승리가 더 중요하고 학생운동대내에서의 정파적 입장보다는 전체 운동의 역사적 임무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 서야 한다.

각 정파의 입장을 내세워 감성대립이 심화한 학생운동의 전반적 침체를 가져오는 입장을 가르쳐 흔히 '분과주의'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진정한 실천가라면 주관적 사상체계보다는 객관적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놓아야 한다. 현재의 객관적 정세와 학생운동의 현재상황을 위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중통일전선의 투쟁조직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실력 정파적 입장이 나뉘는 것보다 하더라도 반파소 투쟁이라는 변혁운동상의 당면과제에 대해 일치된 인식을 갖고 있는 선진학생들이라면 단일한 투쟁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총체적 사상체계의 대립은 분명 구체적 전술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단일 투쟁 조직의 결성을 거부하는 것은 선진학생들의 임무를 방기하려는 최악의 '분과주의'와 다를바 없다.

전술상의 차이는 단일한 조직내의 원칙에 입각한 상투투쟁과 철저한 민주집중제의 준수, 객관적인 활동경로로써 극복되어야 한다. 이 속에서 정치적 정경과 시안을 가지고 대중의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반파소·반독점 대외 투쟁'으로 조직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이후에 고조될 민중의 투쟁에 보다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벌여 나감으로써 92·93년의 권력재편기를 준비하고 있는 파소와 보수 또는 당의 반민주적 본질을 대중들에게 명확하게 각인시켜 그들의 영향력을 무력화시켜 내야 한다.

따라서 투쟁조직은 학생운동을 강화시켜 내면서 민중운동진영의 강화에 복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법과 제2차종합개발계획을 전파하듯 폭로시켜낼 수 있는 투쟁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건설하고 앞으로의 정세추진의 강력한 구심체로 자리잡게 해야 할 것이다.

박진우 경영학과

실천만이 특별법저지 가능  
방관은 미덕일 수 없다

"도민생존 말살속에 재벌들만 살찌우는 특별법을 폐기하라" 이 구호는 요즘 학내 곳곳 어디에서나 흔하게 들 수 있는 구호이다. 9월 정기국회 상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국회의원을 때문에 지금 학내에서는 특별법 저지에 대한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으며 학생회 및 기타 단대학회들의 의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다. 9월4일 열렸던 2학기 구국투쟁선포식에서는 한 학우가 사발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매일 아침 교문앞에서는 연좌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반대로 너무나도 무관심한 모습을 또한 학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특별법이 악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

을 터이고 특별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터인데 아직 제대내에서는 학우들의 무관심 또는 학우들의 방관적인 자세로 인해 우리 청년학생들이 선봉에 서야할 특별법 저지운동이 그리 크게 일어 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학생회를 비롯 몇몇 단대학회들의 의지들도 그 등을 통해 자체내의 결의를 모으고 있으며 주체적인 모습들로 서명운동등을 벌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부 극소수의 이야기들이다. 특별법이라 함은 우리 고장 제주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주체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굴위한 타협적 투쟁인가  
지도부, 투쟁열기 식혀버려

지난 9월4일 2시 민주광장에서 '특별법 저지, 노태우 처단,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2학기 청년이라 구국투쟁선포식'이 있었다. 이 선포식은 2학기들어 처음 갖는 집회로 5백여명의 학우들이 참석해 특별법 저지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수의학과 감성진 학우의 사발투쟁은 학우들의 투쟁의지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학우들은 이런 가열한 투쟁의지를 갖고 교문밖 진출투쟁을 하기 위해 교문으로 진출해 나갔다. 그런데 교문에 이르러보니 당연히 진압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생각했던 전경들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학우들은 "시내로 밀고 내려가 도민 홍보전을 벌이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런데 지도부들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며 학우들의 투쟁열기를 식혀버렸다. 어떤 싸움은 건에 위험부담이 있는건 마찬가지이다.

이런 타협적인 투쟁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비타협적 투쟁뿐이다.

지도부들은 항상 학우들에게 자기들을 믿으라고 말하고는 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지도부들은 학우들을 믿고 힘있게 싸움을 전개해 나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우들을 실망시킬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앞으로 지도부들의 좀더 많은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 (오영윤 국어국문학과)

과제도서실 좌석독점 대학인 자질 의심돼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현대 사회는 깨끗한 문화와 어디까지나 청결을 우선으로 하는 공동체가 성립되고 있을 뿐더러 지적 수준도

높은 향상이었다. 그렇지만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대학에서의 환경이나 생활을 보면 평정한 실상을 얻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첫째로 자동판매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자동판매기에서 어떤때는 커피 속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더러는 고장이 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는 후생과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자주 확인을 하지 않으므로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다. 앞으로는 좀더 개선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둘째로는 도서관 문제이다. 도서관은 물체치고라도 다른 단과대학은 모르겠지만 인문대학 3층에 과제도서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그 자리를 전세내듯 마냥 아껴 책을 갖다 꽂아두고 자신들의 공부방 처럼 자리를 독점해 놓고 있다.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요로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어라 할 수 없었지만 그 과제 도서관은 엄연히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의 독서실처럼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 자리가 부족한 것만 때문 현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핑계로 해서 좌석을 점유하는 것은 지성인인 대학인들이 할 것이 아닌 듯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두면서 좀더 나은 환경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학생들은 학생대로 이기적인 행동을 되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편의를 느낄 수

더이상 우리에게 침묵은 금일 수 없고 방관은 미덕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자신들의 사상과 의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청년학생들을 원하고 있다.

청년학도 여러분 우리 실천하는 학생이 됩시다. 실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줄 것이고 실천만이 특별법을 저지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강명철 에너지공학과)

## 특자의소리

濟大新報는, 재대인이 다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본지기사, 혹은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자하니 원고지 5매 이내로 많은 투고 바랍니다.

당국에서는 '건물완공 후 주·부계획이 모두 진행될 것'이라 반박할지 모르지만 자연대 건물 신축 후 한참이 지난 현재를 보건대 완공후 관리상태 또한 엉망임을 알 수 있다.

자연대 건물완공이 어디 한두달 지났는가. 근대 야까지도 학생들이 필요적으로 다니는 입구에는 보도블럭이 삐그덕거리고 주변에는 보기 흉하게 잡초가 우거지고 울퉁불퉁한 돌들로 가관을 형성해, 또한 이미 주변환경에 무더어진 학우들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학우들이 이런 주변환경에 무관심(?)하면 이유는 당국의 유유부단한 정책에 대한 반발심과 피관상태라고 감히 진단한다. 학우들이 건물

외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주변환경문제는 그리 쉽게 간과할 게 아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공사의 조기관성은 중요하더라도 해를 넘기는 중요한 대공사인 상황에서 당국은 학교정화와 미관상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태우 측산학과)

돈만 있으면 만사 OK인가  
'기여입학제'는 망국의 지름길

지난 9월4일, 정원식국무총리는 前문교부장관이었던을 심본 발취해 '부분적인 기여입학제 검토'라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발상(?)을 내놓았다.

'부분적'이란 것은 무엇이냐,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느 선까지 얘기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예비교사로서 걱정이 앞선다.

교육은 그 나라의 장래를 책임져야 한다. '유대인의 교육방식'과 '독일의 마스터십'이 널리 유명했는가?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들지 않고서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변해어 있는가'하는 문제는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앞에서 또다시 '기여입학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교육을 뿌리째 흔들었다'는 작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단편적인 지식추구'로 많은 문제점을 안아왔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모든 이에게 평등한 교육적 권리를 부여하고,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루 된다면' 민중을 현혹해 오던 정부가 한때 이른 '돈만 있으면 만사 OK'— 그 어려운 대학마저도라며 노래를 부른것과는 건가.

나는 북녘·남녘으로 나뉘, 한반도를 사랑하고, 6천만 민중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비교사이자고보니, 교육을 좀먹는 누구(?)는 미워진다. 정말…… 미워진다. (김인자 국어교육과)

## 개신간

'청년들아, 나를  
밀고 오르거라'  
노신자를 유세종역



이 책은 반제반봉건 운동의 일선에 서서 중국의 '민족혼'이라 불리워졌던 노신의 서한집으로서 그의 사상들이 어떻게 발아했으며,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성숙했는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총 7장에 걸쳐 나 타나는 그의 청년들에 대한 사랑, 세대에 대한 질타와 분노, 문화와 혁명역사에 대한 신념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희망과 바른길을 제시할 것이다. (도서출판 창·4천5백 원)

## 사람들 '투쟁선포식'서 삭발한 강성진 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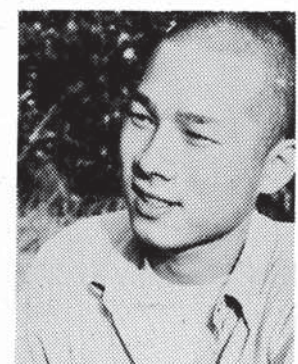
## “특별법의 심각성 모두가 인식해야”

“정권은 특별 법조항 몇 개를 바꾸는 것으로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척 하면서 도민을 기만하고 있으나 제정의도를 본질로 변하지 않는 악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4일 '특별법 결사저지, 노태우 처단,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2학기 청년이라 구국투쟁 선포식' 중에 5백여명의 학우들 앞에서 특별법 결사저지의 의지를 보이며 삭발을 한 강성진(수의2)학우.

“특별법저지 학생투쟁위원회 건설을 위한 농과대학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특별법에 대해 잘모르고 있는 학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그들에게 특별법 저지투쟁의 절실함을 알리고 싶었다”고 삭발동기를 밝힌다.

그는 특별법 저지투쟁의 방향에 대해 “이제까지 특별법 투쟁은 구심점이 없었으나 최근 결성된 범도민회가 앞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별법 투쟁은 단순한 생



존권싸움이 아니라 반미·반민중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기에 특히 우리 재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농과대학학생회 문화홍보부 차장을 맡고 있는 그는 “유인물, 기두투쟁 등을 통한 대도민 선전전으로 특별법의 허구성을 폭로해 50만도민을 단결케 하는 것만이 특별법 저지의 길”이라고 선전과 홍보를 통한 도민의식화 및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많은 학우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요즘 학과 수업에서부터 모임을 보이려하고 있다는 그는 “학우대중 속에 뿌리를 둔 학생운동이 되지 못한다면 늘 소외되고 격리된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학생운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미제국주의에 의해 썩어가고 있는 우리문화를 회복해야 한다”며 졸업후에는 농민회에서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는 그는 “물질만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물 들어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학우들은 없었으면 한다”며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조·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별법 저지투쟁이 대열에서 우리 모두는 실천하는 아라민들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학우들에게 호소하는 그의 삭발한 모습에서, 특별법안이 폐기되는 승리의 그날을 보는 듯하다. 【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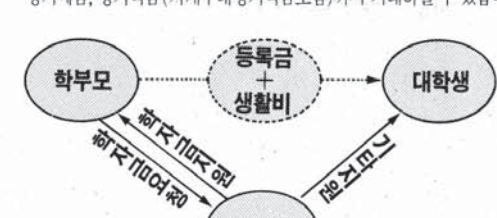
부모님께서는 여유를, 여러분께서는 미래를—

최고 300만원의 교육비를 대출해 드리는  
학부모통장.

알찬 지성과 높은 이상을 갖고 꿈을 대학생활. 조흥은행이 여러분의 대학생활과 함께합니다. 조흥은행은 최고 3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학부모통장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학부모통장, 이렇게 편리합니다.

-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교육비를 자동대출하여 드립니다. \* 최근 1개월 평균예입 5백만원
- 송금 수수료 면제하여 드립니다. \* 온라인 송금수수료, 해외유학비용 송금수수료(매월 정기적인 교육비, 생활비 등이 일괄결제 자동송금)
- 30만원의 소액긴급자금 대출하여 드립니다.
- 전화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계좌에 유학준비 자금에 대해 송금할때 은행에 직접 나오실 필요없이 당행은 물론 타행으로도 송금가능.
- 자녀앞으로 서류등의 긴급전송요청이 있을 경우(당행 FAX 활용) 무료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 각종 공과금, 정기예금이자, 적금원금, 대출이자 등을 자동 납부하여 드립니다.
- 통장하로 저축예금(저축예금이 있으면은 자유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가계유대정기적금)까지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받은 내일, 힘찬 성장  
**조흥은행**

예금문의

본점: (02) 733-2000

● 제주지점: (064) 51-1261~4 ● 연동출장소: (064) 46-9967